



표지이야기

장유림 작, 묵화 - 바람이 부는 대로, 91×117cm, 장지 위에 석채, 분채, 2015
작품설명 묵화는 두 번의 개화를 한다. 묵화 꽃으로 첫 번째 개화를 하고 열매(다래)가 맺혀 40여 일이 지나고 난 후 솜꽃으로 두 번째 개화를 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묵화 꽃말처럼 솜꽃은 부드러운 바람과 따스한 온기를 온전히 담고 피는 것이다.
전남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및 대학원 한국화 전공. 개인전 6회, 아트페어 6회, 2인전 1회, 현재 전통과 형상화, 새벽회, 진경매화회 회원.

2	‘창’을 열며 친일 잔재와 그 청산	김덕진
3	특집기획_ 변화하는 시대의 독서문화 지역의 독서문화 실태와 변화하는 매체의 시대 읽는 것은 보는 것과 다른가? 아는 것은 자유다 잊혀지고 사라진, 혹은 옆에 있지만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 책 읽기는 디지털 시대 정보 편식 해결책 도서관의 진화	편집부 이향준 최송아 임인자 김옥렬 정봉남
16	문화인 탐구생활 우매재(雨梅齋)의 무한화서	오건규·김정희
21	기획연재 바람이 불어오는 곳, 풍영정	임준성
24	문화진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새로운 전환과 과제	김기곤
30	문화현장 디자인이 펼치는 배려와 상생의 장	신호상
32	문화청년그룹 우리는 문학을 통해 같은 통점이 된다, 공통점	조온윤
34	문화리뷰 매 순간 작별을 하는 사람에게 2019년의 어느 날, 선조들이 겪었던 고난의 바다를 만나다	이서영 김미선
38	문화특특 왜 남도인은 안중근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까? 제18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광주에서	노성태 이명란
42	재단소식·회원 소식_함께하는 사람들	편집부
48	편집후기	

친일 잔재와 그 청산



김덕진_ 광주교육대 교수,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부이사장

우리 주변에 친일 잔재가 너무 많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70년이 넘었는데도 말이다. 어떤 분야에서는 희미하게 남아있지만, 어떤 분야에서는 선명하게, 아니 오히려 더 확산되고 있다는 데에 놀라움을 참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런 현실은 의향 광주전남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가 없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다. 광주광역시청에서는 작년에 친일 잔재 조사를 하고서 현재 발견된 친일 잔재를 청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산 작업은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충남 교육청, 전남 교육청,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 타 지역에서 광주의 청산 작업 사례를 활용하여 친일 잔재 조사에 들어가기도 했다. 일본 언론도 반일 시위와 관련하여 광주의 친일 잔재 청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전남 교육청에서는 유무형의 친일 잔재와 함께 교육현장에서의 친일 잔재도 조사하려고 한다. 충남 교육청이 가장 발 빠르게 움직여 현재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충남의 보령시에서도 친일 잔재 조사를 추진해야겠다는 자문을 의뢰하기도 했다. 전남 해남군에서는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3·1운동 기념탑이 친일 충혼탑을 재활용한 것이라는 광주 용역팀의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는 현재 상황과 해결방안을 언론에서 보도하기도 했다. 이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조사 결과 석물(石物) 가운데에 친일 잔재가 많이 발견되었다. 특히 일제가 타국을 침략하면서 희생된 자국 군인을 추모하기 위해 설립한 '충혼탑' 계열의 비석이 많았다. 그 충혼탑을 민족운동 기념비로 재활용한 곳도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학교 안에 일본 불교식 석등이나 석탑도 많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일본인 교장을 위한 것이었다. 수목이나 교패, 교가 등도 마찬가지로이다. 또한 친일인사에 대한 공적비 등도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심지어는 친일인사가 기관장으로 명시되어 있기도 한다.

이렇게 뒤늦게라도 잔재가 발견된 이상 철저하게 청산되어야 한다. 기관장 명단에 있는 친일인사의 행적을 기록해야 한다. 교가의 일본풍 리듬이나 시대에 뒤떨어진 가사는 전면 교체되어야 한다. 또한 교내에 남아있는 일본식이나 일제 찬양 석물도 철거되어야 한다. 실제 광주시에서는 광주공원에 있는 친일파 공적비 옆에 단죄비를 세운 바 있다. 향나무 등의 교내 수목도 우리 전통 문화를 상징하는 수목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철거하되 일부는 역사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니,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임에 분명하다.

이제 광주와 전남의 지자체는 친일 잔재 청산에 대한 큰 발걸음을 내디딤시다. 그리하여 또 다시 새로운 역사를 엮시다.

변화하는 시대의 독서문화

이번 특집기획에서는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변화하는 시대의 독서문화'에 대해 조명했습니다. 2010년대부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영상 콘텐츠 서비스 등의 온라인 매체가 주목을 받으면서 종이책에 대한 수요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는 지난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국민독서실태조사의 주요 독서지표 대부분에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도시라는 명칭에 걸맞게 독서문화를 장려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으로 시대의 주요 정보매체가 변화했음을 지적하며 정보기술 진보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담론지 『창』은 이러한 시대 흐름 속에서 책과 관련한 분야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이번 특집기획을 마련했습니다. 도서관의 변화부터 시작하여 지역의 독립서점과 인문학 강좌, 영상매체에 관한 고찰 및 읽는 행위에 대한 철학적 고찰까지, 각계의 전문가와 활동가로부터 깊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독서문화 특집이 빠르게 범람하는 정보매체의 시대 속에서 잠시 책에 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편집자 주

지역의 독서문화 실태와 변화하는 매체의 시대

발제_ 편집부

읽는 것은 보는 것과 다른가?

이향준_ 전남대 철학과 교수

아는 것은 자유다

최송아_ 시민자유대학 사무국장

잊혀지고 사라진, 혹은 옆에 있지만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

임인자_ 독립기획자, 소년의서 대표

책 읽기는 디지털 시대 정보 편식 해결책

김옥렬_ 광주전남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도서관의 진화

정봉남_ 前 순천기적의도서관장, 광주시교육청 시민참여담당 사무관

지역의 독서문화 실태와 변화하는 매체의 시대

발제 편집부

광주지역의 독서문화 실태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국민독서실태조사¹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연간 종이책 독서율은 2013년 71.4퍼센트, 2015년에 65.3퍼센트, 2017년에 59.9퍼센트를 기록하며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다. 학생의 연간 독서율 또한 2013년 96퍼센트를 기록하며 상승한 이후 2017년에는 다시 91.7퍼센트로 소폭 감소했다. 즉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단 6명만이, 학생의 경우엔 10명 중 9명이 1년에 1권 이상의 책을 읽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이를 다시 지역별로 나누면 도시 및 지역 간에 큰 편차를 보인다. 대체로 광역시에 비해 도서산간 지역의 독서율이 낮은 것으로 나오는데, 광역시의 경우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했다. 특히 광주의 독서율은 타 지역에 비해 저조한 편으로 나온다. 광주는 2013년 60.7퍼센트의 독서율을, 2015년에는 소폭 상승한 62.4퍼센트를, 가장 최근 자료인 2017년에는 다시 대폭으로 하락한 45.3퍼센트를 기록했다. 이는 독서율 72.6퍼센트를 기록한 서울, 63.6퍼센트를 기록한 경기권 등 타 지역에 비해 눈에 띄게 낮은 수치이다. 2017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광주시민의 절반 이상이 1년 동안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는다는 것이다.

광주의 독서율 저조 현상은 독서환경의 영향도 큰 것으로 보인다. 2017년을 기준으로 광주 내 공공도서관 수는 총 23관이며, 광주보다 도서관 수가 적은 지역은 제주, 울산, 세종 단 세 곳뿐이다. 도서관 보유 도서 및 방문자 수도 마찬가지로 제주, 울산, 세종 다음으로 적다. 인구와 면적에 비해 도서관의 수가 적기 때문에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지역구에 따라 도서관 접근성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도 지적해야 할 부분이다. 광주는 도서관 이용 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평균 5.55점보다 적은 5.13점으로 하위권에 위치했다².

시민들의 독서 관련 활동이 침체된 것도 지적해야 한다. 전국의 성인 독서모임 참여율은 1.8퍼센트인데, 광주는 이보다 세 배가 낮은 0.6퍼센트이다³. 즉, 독서모임에 참여하는 성인이 100명 중 1명도 아닌 200명 중 1명꼴이다. 현재 광주 내에서

1 문화체육관광부 e-나라지표 2013~2017년도 국민독서실태조사. 지역별 독서율은 2011년 이후 e-나라지표에 통계되고 있지 않으나, 국민독서실태조사 전자책에는 요약본으로 기재되어 있음. 위에서 언급한 지역별 독서율 통계는 2017 국민독서실태조사 전자책 내 20쪽 '지역별 주요 독서지표 현황'을 참고함.

2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중 '문화예술공간 이용 만족도-도서관(학교도서관 제외)-1회 이상 이용자' 통계를 참고함.

3 2015 국민독서실태조사 중 '독서 모임 참여율 : 지역별(성인)' 통계를 참고함.

독서와 관련한 커뮤니티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지표이다. 독서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과 관심 또한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별 주요 독서지표 현황〉

지역	연간 독서율	연간 독서량	평일 독서시간	공공도서관 이용률	독서 프로그램 참여율	평균 이상 항목 수
전체 평균	59.9	8.3	23.4	22.2	5.3	
서울	72.6	11.8	30.9	26.8	7.0	5
부산	54.1	5.9	16.6	19.6	3.8	
대구	58.6	6.2	15.1	23.9	1.5	1
광주	45.3	7.1	12.8	13.5	1.1	
울산	52.6	6.6	22.3	28.7	14.3	2
세종	57.0	10.4	14.5	23.8	0.9	2
경기	63.6	7.8	23.7	28.1	8.3	4
강원	64.7	7.9	34.8	28.5	3.7	3
전남	43.6	6.1	14.6	8.9	0.8	
제주	59.8	13.9	39.0	29.4	2.4	3

-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도 국민독서실태조사 전자책 20쪽, 본문 내 참고 지역만 기재함.

독서문화에 대한 고정적 관념과 변화하는 매체

독서는 인류가 지식과 교양을 쌓거나 스토리텔링의 재미를 얻기 위한 전통적인 방법 중 하나였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서 인터넷,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며 사람들이 정보를 얻는 매체 또한 달라졌다. 정보를 얻기 위해 사람들은 백과사전이 아닌 인터넷 검색을, 스토리텔링의 재미를 얻기 위해 소설이 아닌 웹툰을 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온라인 영상 콘텐츠 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면서 정보 전달의 역할이 영상으로 옮겨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독서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독서를 지나치게 강요하고 성역화로 만드는 풍조에 대해서는 비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대인들이 독서를 하지 않는 것은 더 편리하고 접근하기 쉬운 정보 매체가 등장하며 종이책의 역할이 대체된 것일 뿐, 사람들이 습득하는 정보의 양과 질은 더욱더 좋아지고 학습 속도도 빨라졌다는 것이다. 독서를 하지 않는 현대인들의 생활 풍토를 부정적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이제는 구시대적인 관점이라는 지적이다.

현대인의 지식 수준 및 습득 속도가 구 시대에 비해 높아진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온라인으로 사회 이슈를 빠르게 접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담론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등, 매체 변화는 일반 시민들의 자유로운 사회 참여를 가능케 해주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영상 콘텐츠는 새로운 직업군 및 시장을 만들어내며 앞으로도 점점 더 발전하고 거대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매체의 변화에 대해 사람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반한다. 정보 매체가 인터넷과 동영상 등으로 변화하면서 사람들의 정보 및 지식의 습득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텍스트를 읽지 않는 생활 습관으로 인해 사람들의 형상화 능력과 언어 능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인터넷 검색과 동영상 시청으로 대량의 정보를 빠르게 얻는 만큼 기억에서도 빠르게 휘발되어버린다는 것이다. 정보 매체가 더 자유롭고 편리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로 인해 급속도로 침체되는 독서문화와 각계에서 제기되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활발한 담론이 필요할 것이다. ♪

읽는 것은 보는 것과 다른가?

이향준_ 전남대 철학과 교수



오래 전부터 우리는 본다는 것에 남다른 우선성을 부여했다. 본다는 것은 시각의 장에 대상들을 붙잡아 두는 것과 같았고, 관찰된 대상들에 대한 앎을 뜻했다. 'I see'는 'I get it'과 같은 뜻으로 간주되었고, 그들의 의미는 공통적으로 'I understand'인 것이다. 알타미라 동굴 벽화가 예시하듯이 시각 예술은 오래된 예술 양식 가운데 하나였고, 백남준의 미디어 아트도 결국은 예술의 오브제로서 텔레비전에 대한 발견에 다름 아니다. 본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중요성을 가진다.

하지만 인간의 인지 활동을 위한 자원은 무한정이 아니다. 인지에는 제약이 따른다. 우리의 눈은 가시광선 이외의 영역을 보지 못하고, 귀는 가청주파수 대역을 넘어서거나 거기에 미달하는 것들은 듣지 못한다.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라”는 격언은 영화 <곡성>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본다는 활동과 그것의 적절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있다.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다. 우리는 상대를 보면서 대화하고, 담배에 불을 붙이면서 길을 걸으며, 동시에 통화를 하면서 손짓을 한다. 이런 운동은 모두 한꺼번에 함께 일어난다. 인간의 감각운동은 전체적인 면에서 협응적이며, 이런 협응적 감각운동을 위해 뇌는 서로 다른 영역의 운동 부위들을 다루는 신경 네트워크를 함께 움직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이 현대 인지과학이 가르쳐주는 바이다.

이 상호 작용은 매우 섬세하다. 시각 정보가 지나치게 작을 때, 즉 사방이 어두울 때 우리는 무엇이 보이는지 알아차리지 못한다. 눈을 가진 주체에게 문제가 생겨도, 대상에게 모호함이 함축되어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불경에서는 고전적으로 술에 취한 사람은 어두운 길에 놓인 새끼줄 꾸러미를 뱀으로 착각하게 마련이라고 설파했다. 또한 취생몽사(醉生夢死)의 모호한 분위기는 사실상 술에 취한 눈과 꿈속에서 보았던 장면들의 혼란상을 근원영역으로 가지는 삶에 대한 시각적 메타포 가운데 하나다. 마지막으로 너무 많은 시각 정보의 범람도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너무 많은 봄은 너무 많은 정보를 포함한다. 우리의 시지각 정보 처리 네트워크는 우리 눈의 광각각 세포 모두를 자극하는 각각의 신호를 절대 그대로 처리하지 않는다.

다. 우리의 시지각과 그와 함께 발화하는 신경 네트워크 및 시각 정보의 처리를 담당하는 우리 자신의 생물학적 한계는 정보의 과잉을 적절한 압축, 즉 범주화를 통해 해결한다. 대략 100여 개의 광각각이 하나의 광각각 정보로 압축된다. 즉, 순수한 봄이란 없으며, 우리는 결국 볼 수 있는 것만을 보게 된다. 본다는 것의 의미도 늘 논쟁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본다는 경험에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 하나는 본다는 경험이 연관된 대뇌 영역의 정보들과 적절한 상호 작용을 통해 다음 단계의 행동을 위한 적절한 지침을 생산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적절한 봄의 의미란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전자는 사유 작용의 핵심으로서 가상적 문제 상황을 만들어내고, 그 해(解)가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뇌 활동의 방아쇠로서 본다는 경험을 문제시한다. 후자는 정보의 과잉과 과소 사이에서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그 중간길을 따라 눈을 가진 생명체의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데 기여하는 봄의 방법을 문제시한다.

책을 읽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전자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제시하고, 그 답을 찾는 과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독서는 우리에게 텍스트에서 발견되는 정보를 활용한 상황의 시뮬레이션과 해가 없는 질문의 해답 찾기 활동을 일으킨다. 후자는 일반적으로 티브이 시청과 영화 보기의 상황에 해당한다. 우리는 한 컷(cut)과 신(scene)에서 주어지는 시각 정보의 전체가 아니라, 수용 가능한 부분들의 조합을 통해 각기 나름의 이해 방식에 따라 자신의 감상을 만들어 낸다. 같은 장면을 보고 난 이후에 각기 다른 감상은 이런 과정 속에서 나타난다. 반면에 두 활동은 근원적으로는 같은 눈과 같은 뇌라는 자원을 공유한다.

기능과 메커니즘이 국소적으로 대립할지라도 결국 전체적인 면에서는 정도의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 물론 상황의 시뮬레이션, 즉 상상은 책 읽기에서 도드라진다. 모든 감각 정보가 동일한 문자 텍스트라는 시각 이미지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냄새를 보고 날씨를 보고, 그 후각 이미지와 촉각 이미지를 상상하고 느껴야 한다. 반면에 영화 보기는 주어진 시각 정보의 수용과 해석에 더 많은 대뇌 활동이 관여한다. 얼핏 보면 책읽기는 능동적이고, 영화 보기는 수동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고, 수용하며, 파악하고, 이해한 다음, 상상을 통해 그 시각 경험을 자신의 삶과 연동시킨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 둘은 똑같은 행위다.

그러므로 적어도 책 읽기에 대한 오래된 교훈은 티브이나 영화 보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남아수독오거서(南兒須讀五車書)'는 '남아수관오천편(南兒須觀五千篇)'을 넘어 '인간수간오천편(人間須看五萬篇)'이 되는 순간 사실상 같은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 것이다. 영화 5만 편을 본 사람이라면, 도대체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참조하지 않을 수 없다. 더 많은 책을 읽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창조성의 비밀로서 인지적 유동성(Cognitive Fluidity)에 이르는 길은 보기와 읽기를 구별하지 않는다.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도 똑같다. 문제는 비트겐슈타인이 알아차렸던 것처럼 보기와 읽기 자체가 아니라, 언제나 그것의 사용이기 때문이다. 읽기든 보기든 그것의 쓰임새를 찾지 못하는 경험은, 엔진이 헛바퀴를 도는 언어적 현상을 우리의 삶에서 고스란히 반복한다. ♪

아는 것은 자유다

최송아_ 시민자유대학 사무국장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F. Bacon)은 “아는 것이 힘이다(scientia est potentia).”라고 말했다.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자주 인용되는 이 말은 본래 실험과 관찰에 기초한 과학의 진보에서 인간해방의 희망을 찾았던 계몽주의 교육의 경구였다. 이렇게 과학혁명을 이끌었던 ‘지식=권력’ 프레임이 언제부턴가 더 많이 배운 사람이 덜 배운 사람을 규율하고 통제하는 통치 체계로 변질되었다. 지식의 양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는 입시교육은 물론이고, 직업을 얻기 위한 과정이 된 대학교육은 국가행정과 자본시장의 논리에 종속되어 잘 나가는 사람들을 뒤따르며 쫓아가도록 가르치면서 비싼 값에 팔리는 고급 상품이 되라고 다그친다.

몇 년 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난 인문학에 대한 관심은 이와 같은 권력의 수단으로서 지식 습득에 대한 열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성공을 위해 자기를 단련할 것을 주문하거나 행복을 위해 영혼을 달래는 자기계발서의 자리에 이제 인문서적들이 자리하며, 지자체나 각종 시설에서 문화, 교양의 이름으로 열렸던 수많은 강좌들이 인문학 강좌로 대체되었다.

그런데 인문학 공부는 먹고 살만한 사람들의 지적 허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생각에는 인문학이 먹고사는 데 쓸모가 있는 학문이 아니라는 인식이 들어있는데, 사실 인문학의 태생을 살펴보면 그것은 진실이다. 인문학을 가리키는 ‘Liberal Arts’는 고대 그리스에서 자유인이 되기 위해 배워야한다고 여겼던 문법, 변증법, 수사학, 산술, 음악(이론), 천문, 기하학을 이르는 말이다. 중세 대학의 핵심 커리큘럼이기도 했던 이것은 직업적 훈련을 위한 기술의 습득과 달리 지성을 전반적으로 확충하고 다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처럼 인문학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에 갇힌 정신을 탐구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으며, 처음부터 실용적 목적을 위한 학문이 아니었다.

이러한 ‘쓸모없음’은 쓸모 있는 지식만을 추구하라는 사회의 요구에 지친 오늘날 사람들이 인문학에 관심을 갖게 한 요인이 되었다. 문제는 위안, 치유, 행복이라는 자족적 수사로 인문학을 소비하는 경향이다. 오늘날 인문학의 이



광주 시민자유대학에서 진행되는 인문학 강좌.

름으로 열리는 여러 기획들에서 어렵지 않게 이러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TV프로그램이나 책, 또는 강좌에서 인문학은 유명인의 지적 만담이거나 위로로 재무장한 새로운 자기계발서인 듯싶다. 이러한 인문학은 개인과 사회의 연관관계에 무관심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지식=권력’ 프레임을 완수하는 동조자로 기능하고 만다.

인문학자 서경식에 따르면 인문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개인의 자유로운 도야에 있다. 인문학 교육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유로운 인간’으로 키워내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그런데 자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사적 욕구를 무차별적으로 추구하는 방종과 같은 것이 아니다. 본디 자유란 ‘공적인 일에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였다. 공적 토론이 이루어지는 정치공동체인 폴리스(Polis)와 가계의 살림을 담당하는 경제공동체인 오이코스(Oikos)로 인간의 활동영역이 분리된 고대 그리스에서, 사람들은 폴리스에서 정치에 참여하며 사적인 간섭 없이 공공의 것을 논의했던 시민들을 ‘자유민’이라고 불렀다. 자유는 공공적 가치를 품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힘인 것이다.

인문학 교육은 상식과 논리로 세상을 이해하는 합리성, 옳고 그름의 기준을 따지는 비판능력, 스스로의 의지로 뜻을 세우는 자유,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상상력, 다른 사람의 처지를 보듬는 감수성을 통해, 다양한 현상들을 보면서 스스로를 지식과 교양으로 판단 가능한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한다. 인문학의 쓸모란 바로 이런 것들을 무기로 공적 담론의 지형을 바꾸어 가는 데 있다. 지식이 권력이 되는 세상에 저항하는 진정한 인문학은 이제 베이컨의 테제를 이렇게 바꾼다. “아는 것은 자유다.”

잊혀지고 사라진, 혹은 옆에 있지만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



임인자_ 독립기획자, 소년의서 대표

깜깜한 골목길, 노란 불빛이 작은 서점 사이로 새어나온다. 좁은 서점 안 사람들이 빔프로젝터에서 나오는 광주문학 100년사의 이야기를 바라본다. 연구자가 1920, 1930년대 소년운동의 시간으로 우리를 데려간다. 일제 시기,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동요와 어린이 문화까지 모든 것이 억압됐었던 그때로부터 소년들이 도래했다. 소년들마저도 일제의 감시를 받던 그 시절, 문학이 피어올랐다. 또한 총장로 4, 5가에서 30년 이상 그 자리를 지켜왔던 이화자수 사장님의 이야기를 듣는다. 지난 7월 말과 8월 중순, 광주극장 뒷골목에 있는 독립서점 '소년의서'의 밤 풍경이다.

최근 독립서점의 번성이 심상치 않다. 10여 년 전 '북 소사이어티(Book Society)'로 시작한 독립서점의 흐름은 '필름 앤 스토리지', '고요서사' 등 해방촌과 홍대 등의 지역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독립 출판과 예술 서적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과거 다양한 사회과학 서점과 대학로 '이음책방'과 같은 서점들이 존재하기는 하였지만, 인터넷 서점과 대형 서점 틈에서 지역책방, 동네책방, 독립서점들은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는 시기였다. 하지만 2014년 말부터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서 대형 서점 및 인터넷 서점과의 불균형적인 가격 요소가 사라지자 동네책방들이 속속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독립서점 소년의서 문화행사.




© 최성욱 다큐멘터리 감독

동네서점의 존재 자체가 현재 자본주의의 원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동네서점의 존재는 우리 세계에 질문을 던지는 일련의 문화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다. 독립서점 '소년의서' 역시 대형화되고 일원화되는 문화와 자본의 구조에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의도를 함께 가지고 있다.

대량판매를 통해 폭넓은 할인이 가능하고 높은 마진율에 높은 판매고를 일으키는 구조인 대형 서점과 소규모 동네책방의 가격 불균형은 현재 자본주의 구조와도 닮아 있다. 대량 생산과 대형 유통 채널을 통한 소비를 통해 생산과 소비 속에서 대기업 중심의 구조가 심화되고 삶의 불균형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동네 서점들은 대형화된 자본 구조의 틈에 균열을 가한다. 동네서점의 존재 자체가 현재 자본주의의 원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동네서점의 존재는 우리 세계에 질문을 던지는 일련의 문화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다. 독립서점 '소년의서' 역시 대형화되고 일원화되는 문화와 자본의 구조에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의도를 함께 가지고 있다.

자본 구조에 작은 균열을 일으키고자 하는 의도뿐만 아니라 서점은 문화 다양성을 피워내는 문화의 꽃이 되기도 한다. 서점은 도서를 보급하고, 독서의 경험을 공유하며, 담론을 만들고,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독립서점과 동네서점은 서점 주인들과 서점원들이 선택하는 큐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관점과 인문학적 깊이를 독자들과 교류한다. 또한 기성출판물이 아닌 직접 제작하는 독립출판물들은 최근 대중들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기성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초기 독립서점이 예술출판물과 독립출판물을 통해 시작했던 시점과는 또 다른 형식으로 다양한 저자가 독립출판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매일 단돈 만 원의 구독료를 내면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이메일로 글을 제공하고 있는 작가 이슬아씨의 수필집 『일간 이슬아 수필집』은 벌써 10쇄에 돌입한 상황이다.

동네서점은 또한 지역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일에도 참여하고 있다. 골목잡지 『사이다』의 경우 지역의 지도를 그리고 인문 활동을 전개하며 잡지를 출판하는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지역 콘텐츠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서점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에 경우에도 최근 동명동에 '리울피움'이 개점하였는데, 매달 한 지역출판사의 책들을 선정해서 소개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광주에 있는 지역 출판사인 전라도닷컴을 초대하여 『월간 전라도닷컴』과 전라도닷컴이 출간한 지역 출판물을 소개하였고, 6월에는 『월간 토마토』를, 그리고 7월과 8월에는 고창 해리 책마을을 소개했다. 최근 '소년의서'에서도 지역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 『충장 디스커버리』가 그것인데, 지난 6월에 1973년부터 총장로를 지켰던 노틀담 제화 임종찬 대표님을 모시고 수제화 제작과 총장로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바 있다. 7월에는 1983년부터 총장로를 지켰던 이화자수 김재경 대표님을 모시고 컴퓨터 자수와 총장로의 역사 이야기를 들었다. 지역에서 독립서점은 바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잊혀지고 사라진, 혹은 바로 옆에 있지만 그 존재를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것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책 읽기는 디지털 시대 정보 편식 해결책

김옥렬_ 광주전남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정보 또는 콘텐츠 소비와 생산, 가공 형태는 이제 영상 등 디지털 정보로 수렴하는 듯하다. 유통공간이 온라인을 활용한 SNS로 빨려 들어간 것처럼 말이다. 물론 기타 콘텐츠 생산 미디어가 이미 없어졌거나 당장 없어질 것은 아니나 대체는 역시 영상, 그리고 온라인에 기반한 디지털 콘텐츠다. 영상 콘텐츠는 온라인 활성화로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쉽고, 유통 또한 매우 쉬워졌으며, 무엇보다 정보의 총체적인 이해가 오디오나 텍스트, 이미지만을 주로 사용하는 다른 미디어에 비해서는 쉽다는 게 이유인 것 같다.

인류가 정보를 담는 그릇으로서 활용한 도구의 원조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책이었다. 인류는 문자 발명 이래 수천 년 간 문명 발달과정을 기록했고 또 후세에 필요한 지혜를 글로 전했다. 이 기록의 핵심 매체가 책이었다. 초기 원시적 형태의 책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어쩌면 인류 문명 발달의 역사는 책의 역사인지도 모른다. 이후 카메라와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에 이르기까지 정보생산 및 유통을 위한 새로운 미디어가 술하게 나왔지만 책의 지위는 흔들리지 않았다. 물론 글자를 알아야 하고,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는 등의 몇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텍스트 중심의 책이 갖는 접근 보편성과 보관성, 휴대성, 제작 편의성과 담을 수 있는 정보의 양 등 다양한 장점은 다른 도구들이 넘기 어려운 벽이었다.

책의 위기

그 책이 21세기에 들어와 운명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책의 운명은 전적으로 소비행태의 변화에서 출발한다. 20세기까지는 정보의 주요 생산과 소비 도구로 가장 애용하던 책이 정보화 사회로 전환하면서 디지털 미디어에 그 지위를 빼앗기고 만 것이다. 온라인과 웹, SNS, 스마트폰 등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정보화 사회에서는 길고 지루하고 높은 관여가 필요한 책 읽기보다 쉽게 보고 이해되며 유통도 쉬운 영상 또는 너번벌 형태의 콘텐츠가 각광받게 된 것이다. 스마트폰이라는 마법 같은 도구가 개발되면서 영상정보 생산이 엄청나게 쉬워진 점도 이런 흐름에 한몫했다.

소비자들의 책을 대하는 태도는 확실히 변했다. 책이 아날로그 형태에 머무는 사이-디지털화 시도도 있지만- 독자들은 더 편리한 형태의 영상 감상과 디지털 정보 이용 쪽으로 달아나버렸다. 우리나라 미디어 발달과 변화과정을 보더라도 1980년대 후반부터 태어난 세대는 온전히 영상 콘텐츠 세대, 2000년대 이후 출생 세대는 모두 디지털 세대로 구분해도 무방하다. 이들은 책 읽기보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스마트폰과 친숙한 세대다. 책은 잘 읽지 않는다. 아니 거의 읽지 않는다. 이

책을 읽는다는 것은 읽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상상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는 곧 한 사회를 넘어 인류의 상상력의 폭을 키우는 것이고 결국 인류문명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지구촌 수천 만, 아니 수억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동일한 콘텐츠를 받아먹고 희희낙락할 수 있는 편리한 시대지만, 그런 소비 방법에만 머무른다면 어떻게 새로운 생각과 발전이 가능할 것인가?

런 흐름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서 책이 지금 당장 사형선고를 받은 것은 아니다. 많은 자료들이 아직도 책이 존재하고, 또 수많은 종이책이 새로 만들어지며, 디지털 콘텐츠가 책의 형태로도 꾸준히 발간되고 있다는 점 등을 보더라도 책의 존재가치는 위협받을 수 준은 아니다. 앞으로 인류가 상상 가능한 먼 미래 어느 시점까지도 책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은 분명해 보인다.

책을 읽어야 한다는 논리는 수많은 전문가가 이미 술하게 설파했다. 독서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전혀 새로운 것도 없고, 새로이 만들어낼 논리도 없을 것이다. 다만 새로이 그 중요성을 꺼내 재확인할 뿐이다.

디지털 정보 편식

책은 축적된 양이나 깊이로 볼 때 여전히 인류 정보의 원천이다. 스마트 시대에 유통되는 디지털 정보는 사실상 대부분 그 출발이 책에 기반한다. 일회적이고 단순하며, 한 번 보고 웃고 버릴 소비적 콘텐츠가 아닌 이상, 그동안 인류가 모아온 정보와 기록은 충분히 훌륭하고 넉넉한 자산으로 책에 남아있다. 다가올 22세기를 대비해 영상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가 인류발전에 도움이 될 새 콘텐츠로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우린 기존에 책이 기록해온 정보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것처럼 창의적이고 새로운 형태의 새 미디어를 창조하거나 신선한 정보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창의적인 인간이 필요하다. 그 창의적인 인간의 창의성을 길러주는 것이야말로 책을 읽는 행위다. 쉬운 비교로 영상을 주요 전달방식으로 하는 콘텐츠나 디지털상의 가벼운 볼거리들 중심으로만 정보 소비를 할 경우를 가정해보자. 소비자는 흘러가는 대로, 보여주는 대로 보고 즐길 뿐이다. 반대로 읽는 행위는? 단편소설 한 편을 보더라도 읽음과 동시에 끊임없이 주인공의 성격을 상상하고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이미지를 스스로 생성하며 이해하려 한다. 이것이 상상력이며, 이 상상력이 바로 창의성의 원천이며, 책을 읽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상상력과 공감능력을 기르는 기초적 행위다.

상상력 키워줄 독서

또 책을 읽는다는 것은 읽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상상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는 곧 한 사회를 넘어 인류의 상상력의 폭을 키우는 것이고 결국 인류문명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지구촌 수천 만, 아니 수억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동일한 콘텐츠를 받아먹고 희희낙락할 수 있는 편리한 시대지만, 그런 소비 방법에만 머무른다면 어떻게 새로운 생각과 발전이 가능할 것인가? 각자가 지닌 수만 가지 개성과 창의성을 발현해낼 수가 있을까? 독특하고 개성 있는 콘텐츠는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정보 소비 편식을 막는 것이요, 그 방법이 곧 독서다. 지극히 아날로그적인 해결책이지만 책을 읽는 것이 답일 수밖에 없다. ♪

도서관의 진화



정봉남_前 순천기적의도서관장, 광주시교육청 시민참여담당 사무관

어느 유명한 휘트니스센터 입구에는 이런 말이 써어있다고 한다. “운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건 체육관에 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방금 그걸 해내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쉬운 걸 해보겠습니다.” 이를 패러디하면 “책 읽기에서 가장 어려운 건 도서관에 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방금 그걸 해내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은 2018년을 ‘책의 해’로 선포했다. 독서생태계의 위기를 감지하고, 함께 책을 읽음으로써 새롭게 만들어 나갈 미래에 대한 꿈이 담겨있었다. 역대 최저 독서율과 함께 책을 살리자는 움직임이 활발했다. “요즘 무슨 책 읽으세요?” 묻고 답하는 사이 당신의 일상에 다시 책을 펼치는 순간이 다가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다. 책읽기는 선언이나 명령으로 이뤄질 수 없는 영역이고 특별한 날 이벤트가 아니듯 일상의 문화로 스며들어야 함은 물론이다. 책과 삶이 서로를 아름답게 빛어가는 생활문화의 새로운 시작, ‘책의 해’가 갖는 진짜 의미였다.

국민독서실태조사를 보면 성인 10명 가운데 4~5명은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다고 한다. 자신의 독서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책을 꼭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떨어지고 있다.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많은 이들이 스마트폰에 쏟는 시간이 2시간 20분인 반면 책을 읽는 시간은 20분도 안 되는 통계는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할까? 날마다 이슈에 댓글을 달고 항의하고 분노하는 동안 언어는 점점 거칠어지고 내면은 황폐해지는 게 아닌가. 이른바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마샤 메테이로스)이 많아지고 있다는 반증일지도 모른다. “여행을 가지 않는 사람, 책을 읽지 않는 사람, 인생의 음악을 듣지 않는 사람, 자기 내면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이라고.

현재 전국의 공공도서관은 1096개, 작은도서관은 6058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30조 원을 투자해 체육관을 1400개, 공공도서관을 1200개로 늘릴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공공도서관은 인구 5만 명당 1개관에서 4만 3천 명당 1개관 수준이 된다. 도서관이 많아지면 책 읽는 사람도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현실은 냉혹하다. 도서관 수를 늘리는 것으로는 더 이상 독서 진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도서관 수와 장서량이라는 하드웨어는 독자활동과 참여라는 소프트웨어 기획 없이 더는 작동하지 않는다.”(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대표)

도서관의 이런 위기는 사회 전체에 퍼진 독서문화의 쇠퇴와 비용 대비 효과와 성과주의만 따지는 신자유주의적 발상 때문



Kultur Huset, 스톡홀름 시내 중심광장에 있는 건물. 6개의 도서관이 있다.



이동도서관 북버스, 핀란드와 스웨덴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다. 오전에는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오후에는 작은 마을을 찾는다.

이라고 진단한다. 도서관에서 펼쳐지는 지적 행위의 가치를 단기적인 척도로 어떻게 잴 수 있을까. 이를 두고 도쿄경제대학 도서관장 서경식 교수는 “도서관적 시간을 되찾자”라고 말한다. ‘도서관적 시간’이란 깊은 질문에 침잠하면서 끝없는 문답에 몰두하는 것이고, 그 사고과정 자체가 풍요와 기쁨에 차 있는 것이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기쁨, 자유로운 인격으로 자신을 형성해가는 기쁨이다. 그런 기쁨을 제공하려는 장소가 바로 도서관이라는 것.

도서관은 이제 ‘독자 부흥’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안고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운명을 맞았다. 책읽기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 새로운 독서문화의 가능성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도서관은 어떻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인간의 사회성을 충족해줄 것인가. 시민들은 도서관이라는 공간에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을까? 도서관에서의 경험은 어떤 느낌일까? 이른바 ‘사용자 경험’-UX(User eXperience)에 대해 운영자는 세심하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도서관을 크게 하는 것은 규모가 아니라 손님에 대한 환대이며, 친절한 개인적 봉사”이니까 말이다.

극단적 대비를 이루는 세대별 독서경험 또한 숙제다.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의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검색되는 시대를 살아온 젊은 층에게 책이라는 미디어는 낡고 매력적이지 않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인터넷이라는 효율적인 정보수집과 독서라는 비효율적인 사색의 균형을 맞추도록 도서관은 힘써야 할 것이다.

“읽고, 연결하고, 배우고, 창조하라!(Read, Connect, Learn, Create)”는 외침처럼 도서관은 더 넓은 세상과 사람들을 연결하고, 배움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혁신적인 사회적 공간으로, 시민 독서공동체의 허브로, 새로운 시대의 메이커 스페이스로 진화하는 중이다. 도서관은 운영자의 사고, 상상력, 기량과 경험을 크게 필요로 하는 유기체다. 평범한 것을 가지고도 독특하고 특별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품격과 수준이다.

‘당신의 휴가는 정의로운가’, ‘결혼하지 않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하여’, ‘인공지능은 더 이상 SF가 아니다’, ‘기본소득 복지에서 권리로’ 등 시민이 원하는 주제를 기준으로 이용자와 함께 책을 재분류하는 느티나무도서관의 컬렉션은 좋은 예다. 시민의 삶과 공동체 성장의 든든한 지원자로서 사랑받는 도서관의 비결이자 저력이다.

세상의 어떤 것들은 효율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감수성을 필요로 한다. 책이 그렇다. 세상의 신비와 진실을 알기 위해 우리는 밤을 새고 생각에 잠기면서 결국 진짜 나를 만난다. 책을 통과하면서 이전의 내가 아닌 새로운 내가 탄생된다. 이 또한 인간의 오랜 열망이다. 사유하는 시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찰, 이웃을 헤아리는 공감능력이야말로 미래사회의 창조적 원동력이다. 이렇게 읽은 책을 덮을 때 삶이 열린다. ♪

문화인 탐구생활



우매재 雨梅齋의 무한화서

— 목운 오견규 화백과의 차 한 잔

김정희_ 시인, 본지 편집위원장

제 그림은 불교정신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앞에 말씀드린 「무심(無心)」의 그림을 좋아 합니다. 불경에 보면 무심이 도(道)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비운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물을 바라볼 때 단순하게 보려고 합니다. 틀에 매이지 않고 숨어 사는 즐거움을 그림에서 표현하려고 합니다.

목운 선생님을 뵈기로 약속하고 금동의 화실을 찾았다. 여전히 순수하고 환한 미소로 맞아 주시는 선생님 덕분에 8월의 폭염이 슬며시 자취를 감추는 듯하다. 일생묵노(一生墨奴)의 철학으로 고절한 매화 향을 화폭에 옮기는 세월이 어느덧 수십 년—그 풍경의 여백에 담고 있는 이야기는 매화의 티 없는 꽃망울이거나, 아니면 빈 꽃가지의 텅없는 독백이다. 흐르는 바람처럼 생각을 비운 한 남자이기만 했을까? 어쩌면 그 모든 깊이를 지나온 노화가의 절절한 그리움이나 고독은 아니었을까. 삶 자체가 고평에 물든 한 폭의 그림 같은 우리 시대의 진짜 예술가, 목운 선생님을 만나 그의 예술관인 무위자연의 목가적이고 서정적인 붓 이야기를 들었다.

김정희(시인, 이하 김) 먼저 얼마 전 대동문화재단이 선정한 제1회 전통문화대상을 수상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화단의 큰 경사라고 느껴지고 그동안 쌓으신 업적을 돌아보면 당연한 수상일 거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근황을 여쭙고 싶습니다.

오건규(화백, 이하 오) 일흔이 넘으니 우선은 아픈 곳이 늘어납니다(웃음). 작년에 화실 이름을 ‘일지춘실’에서 ‘우매재(雨梅齋)’로 바꾸었지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의 하얀 매화나무! 시심(詩心)을 깨워주는 듯 생각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김 ‘재(齋)’는 집을 의미하는 ‘당(堂)’이라는 의미와는 많이 다르겠지요? 우매재에서 선생님의 마음 길을 따라 걸어보겠습니다.

오 그렇지요. ‘재’는 집 재 자를 사용하지만 ‘목욕재계하고 깨끗이 하다’, ‘다스리다’, 혹은 ‘가지런히 하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동양미술을 하려면 동양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기원전 중국의 시경은 최고로 아름다운 고전이고 그 안의 내용은 시뿐만이 아닌 노래, 무용, 그림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시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인데, 동양화도 인간 마음의 바탕이 깨끗해야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쪽에서는 노자와 공자의 사상을 중요시했지요. 제가 그림에 입문할 때 스승인 아산 조방원 선생님께서도 그림은 수행하는 사람처럼 해야 하며 우선은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수행은 할 수 있겠지만 언제쯤 사람이 돼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려나 생각하기도 했어요.

김 문학과 철학이 원래 한 분류에서 출발했듯 그림도 마찬가지로요. 선생님의 그림에서 느껴지는 착한 본성과 깊은 서정이 어쩌면 그런 인간적인 고뇌와 생각의 산물이라는 것이 이해됩니다. 앞으로 선생님의 작품세계에 대한 구체적 구상도 부탁드립니다.

오 우선 동양미술은 문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공자도 인은 예악의 핵심이고, 예악은 인의 외재적 표현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논어에 회사후소(繪事後素)라는 말이 나옵니다. 회사후소는 바탕을 먼저 손질한 후에 채색한다는 뜻으로, 사람은 좋은 바탕이 있는 뒤에 문식을 더해야 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지요. 문사는 요즘 말로 지성인이라 할 수 있겠는데, 동양화는 바로 문사, 지성인의 그림입니다. 옛 사람들은 그림 속에 억울했던 마음이나 비분



인터뷰 중인 김정희 시인(좌)과 오건규 화백(우).

강개의 심정까지 담아서 표현했습니다. 동양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오랫동안 세월이 쌓아져야 하고 완성되기 전에는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천재라는 말을 쓰지 않고 ‘대가’라고 합니다. 대가라는 말 외에 ‘대종사’라는 말도 있지요. 자신의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큰 스승에게 대종사라는 말을 씁니다. 노경의 심경과 인생의 감회와 태도를 담지 않았다면 감히 그런 이야기를 꺼낼 수는 없겠지요.

김 선생님께서 섬세한 인문학 언어로 그려낸 동양미술의 세계가 조금은 어렵고 선이 굵게 느껴집니다. 차향이 참 좋은데 잠시 차 한 잔 드시면서 대동전통문화대상을 받으신 소감과 수상 후 화가로서 지나온 길을 돌아보신 느낌도 듣고 싶습니다.

오 저는 뜻하지 않게 상을 받았지만 함께 수상하신 두 분들은 전통예술분야에서 오랫동안 쌓아 올린 성과에 대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사실 제 그림은 남을 위한 그림이라기보다 제 자신을 위한 그림입니다. 매화는 매서운 추위를 이긴 후에 꽃을 피우는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서양은 미술을 작업이라고 하지만 동양 미술은 일필휘지라 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간결하면서 뜻에 목적을 두고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냅니다. 이것은 참으로 오랜 세월 수련의 결과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자연이 갖는 오묘한 진리, 즉 무위에 가까운 철학을 이해해야 합니다.

김 ‘세한도’나 사마천의 ‘사기’ 일화를 생각하면 선생님의 말씀이 더 가깝게 다가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나요?

오 서양의 자연인 ‘nature’와 동양의 자연인 ‘무위(無爲)’는 조금 다릅니다. ‘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무위는 ‘그런 줄 모르게 그러하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까요?

달변에 가까운 목은 선생의 동양철학 이야기는 중국의 고사를 넘나들며 이어졌다. 사물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면을 파악해야 한다는 빈모여황(批牡驪黃)의 유래를 들었다.

언젠가 진목공이 상마(相馬, 말을 감정하는 일)의 고수인 백락(伯樂)을 청하여 상마 인재의 추천을 부탁하였다. 백락은 구방고(九方臯)라는 자의 상마 수준이 자신과 맞먹는다고 하면서 그를 적극 추천하였다. 구방고는 진목공으로부터 명을 받고 천리마를 찾아 떠났다. 얼마 지나 구방고는 진목공에게 돌아와 “천리마를 찾았습니다. 먼 사구(沙丘) 지방에 있습니다.” 라고 보고하였다. 진목공은 물었다. “당신이 찾은 말은 어떤 말인가?” “황색 암컷 말입니다.”라고 구방고가 대답하였다. 진목공은 사자를 파견하여 천리마를 찾아오게 하였다. 그런데 구방고가 고른 그 천리마는 흑색 수컷이었다. 진목공은 화가 나 백락을 불러 책망하였다. “당신이 추천한 구방고는 상마 고수가 아니군요. 그는 말의 색과 암수도 분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리마를 찾을 수 있단 말이지요?” 하지만 백락은 “구방고의 상마 수준이 이렇게 전문적이고 정통할 줄 몰랐습니다. 그가 상마할 때 이미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만 취하였고, 표면으로부터 안으로 이르는 관

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가 주의한 바는 천리마가 갖추어야 하는 조건이지, 색깔이나 자용 등 사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방고는 진짜 상마 천재입니다. 그는 나보다도 뛰어납니다.”하고 감격하여 말하였다. 진목공은 백락의 말을 듣고 나서 반신반의하며 구방고가 고른 말을 데려와 확인했는데, 과연 천하에 둘도 없는 천리마였다.

목운 선생님은 이 고사를 들려주시면서 선생님의 그림 속 매화의 본질을 상기시켜주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시도 함께 들려주었다.

오동나무로 만든 악기는/천 년을 묵어도/자기 곡조를 간직하고/매화는 일생을 추워도/그 향을 팔지 않는다/달은 천 번을 이지러져도/본바탕은 변치 않으며/버드나무 가지는 백 번 꺾여도/새 가지가 돌아난다

- 신홍, 「야언(野言)」

빙자옥질(冰姿玉質)이여 눈 속의 네로구나. 가만히 향기(香氣) 놓아 황혼월(黃昏月)을 기약(期約)하니, 아마도 아치 고절(雅致高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 조선 고종 때 안민영의 시조, 「매화사」 중에서

김 선생님의 그림과 철학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편안하지만 어느 부분은 허를 찌리는 느낌도 듭니다. 내년 초쯤으로 계획하고 계신다는 선생님의 새 전시회에서는 그림의 소재나 내용의 변화도 있는 건가요?

오 제 그림은 불교정신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앞에 말씀드린 「무심(無心)」의 그림을 좋아 합니다. 불경에 보면 무심이 도(道)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비운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물을 바라볼 때 단순하게 보려고 합니다. 틀에 매이지 않고 숨어 사는 즐거움을 그림에서 표현하려고 합니다. 동양의 그림에는 자신의 그림 속에 자신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연꽃을 그리더라도 무심을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즐겁도다. 산 속에 숨어 사는 삶은 큰 사람의 너그러운 모습일러라. 홀로 잠자고 홀로 말하니 그 깊은 뜻 길이 잊지 말거라.” 이 시는 원래 공자가 편찬한



오건규 작, 「무심」



화실 서재 앞에서 오건규 화백.

시경(詩經) 속에 나오는 「고반(考槃)」이란 시였습니다. 공자는 시는 본래 노래의 가사로서 무엇보다도 민심을 솔직하게 반영하여 가장 올바른 정치의 득실을 알 수 있게 하고, 사람뿐만 아니라 천지와 귀신까지도 감동시킬 수가 있어 그 효용이 심히 막대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중에서도 이 시는 산속에 은둔 생활하는 군자의 즐거움을 노래한 시가로서 평소에 탄금대에서 퇴계가 즐겨 들던 노래였습니다. 이 외에도 가도와 굴원, 유종원 등의 시와 그에 얽힌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 시경을 비롯해 중국의 고전 시가까지 선생님의 해박함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그 '무심'을 저도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숨어 사는 즐거움이란 지금은 산속에 아닌 시경에 나와서 숨어 사는 즐거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온 세상이 흐리면 적절히 때를 묻히고, 온 세상이 취해있으면 적절히 취하면 되지 왜 고상하게 구느냐고 굴원에게 말한 어부는 사실 굴원의 또 다른 속마음이 굴원 자신에게 건네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굴원이 결국 죽음에 이른 것은 자신의 다른 속마음으로 형상

화되는 어부의 말을 거절했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입니다만…….

오 그렇지요. 어찌보면 사람은 한번 속되면 고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제 전시회의 주제를 대나무와 매화로 생각하는데, 제목을 '죽청매수(竹青梅瘦)'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죽청매수-대나무는 푸르고 매화는 마르다, 그런 의미입니다. 큰 그림은 어찌 보면 탐욕이 담길 수도 있어 절제의 마음이 담긴 작은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린 후에는 오랫동안 바라봅니다. '유매무설 부정신(有梅無雪 不精神) 유설무시 속요인(有雪無詩 俗了人)' 제 그림에 무심의 마음으로 시를 써 보았습니다.

김 선생님의 그림 속 매화를 보며 저도 무심과 절제를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몇 편의 그림에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앞으로 꼭 그리고 싶은 소재가 있으신지요?

오 진선진미(盡善盡美)를 생각하면 앞으로 제가 그릴 그림이 이해되실 거예요. 동양미학과 서양미학은 차이가 있습니다. 동양화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수묵을 견지하는 자세가 필요하지요. '내 그림 속에 들어와 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문화를 향유한다는 것은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선은 스승님이 전하셨던 '선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앞으로는 세밀한 초상화도 그리고 싶습니다. 그리기 가장 어려운 게 초상화라고 하지요. 공재 윤두서 화백의 초상화를 특히 좋아합니다.

선생님 화실에는 줄이 없는 가야금, 인연이 닿아야 소리가 난다는 무현금이 걸려있다. 줄이 없는 가야금을 걸어놓고 마음을 다스렸다는 무현금은 사물의 본질을 깨우치라는 의미라고 한다. 원래 없는 것, 무어를 설명하려는 것. 화선지와 붓이 만나야 그림이 된다. 짧은 시간의 인터뷰, 선생님과의 만남은 꽤나 편안하고 즐거웠지만 이야기에 흠뻑 취한 탓일까. 큰 신비로움이 남는다. 이제 선생님의 다음 전시회 '죽청매수'를 기다린다. 그때를 기대하며 화실을 나선다. ♪

바람이 불어오는 곳, 풍영정



임준성_ 광주여대 교수

풍영(風詠)은 『논어』의 「선진」 편에서 나온다. 공자는 제자들을 앉혀두고 “평소 그대들은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는데 만약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장차 어떻게 쓰이기를 원하느냐”고 물었다. 이때 증점(曾點)이란 제자가 비파를 드문 드문 타면서 친구들의 대답을 듣고 있다가 자신이 대답할 차례가 되자 “늦봄에 봄옷이 만들어지면 관을 쓴 어른과 아이와 더불어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우에서 바람 쐬고 노래하며 돌아오겠습니다(浴乎沂風乎舞雩詠而歸)”라고 대답한 것에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풍영정 현판

풍영정은 광주광역시 문화재자료 제4호로 지정된 누정이다. 광산구 극락강변에 위치하여 그 풍광이 자못 아름답기가 가히 제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면 4칸, 측면 2칸의 누마루 형태에 팔작지붕이다. 주춧돌을 받치고 있는 기단이 여느 누정보다 높아서 극락강을 가로지르는 신가대교에서 바라보면 위풍당당해 보인다. 오른쪽으로 극락강이 유유히 흐르고, 비랑처럼 깎아지른 언

덕에 풍영정이 자리하고 있다. 누정 주변의 노송은 가지를 길게 늘어뜨리면서 한여름 피약벌에도 기개를 결코 굽히지 않겠다는 듯 의연히 서 있다. 누마루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한여름 땀벌에도 시원한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바로 풍영정이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누정 뒤로 높고 길게 이어진 아파트들이다. 푸른 하늘 아래 풍영정만 텅 하니 있는 사방을 호령하는 듯한 장대한 기상을 지금은 볼 수 없는 것이 유감이다.

풍영정은 조선 중기 때 문신 김언거(金彦據, 1503~1584)가 지었다. 김언거는 본관이 광산(光山), 자는 계진(季珍), 호는 칠계(漆溪)이다. 1525년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한 후 교리(校理), 응교(應敎), 승문원(承文院) 판교(判校)를 끝으로 고향으로 내려와 풍영정에서 10여 년 정도 보내면서 김인후(金麟厚), 기대승(奇大升) 등과 교유하며 지냈다고 한다.

풍영(風詠)은 『논어』의 「선진」 편에서 나온다. 공자는 제자들을 앉혀두고 “평소 그대들은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



풍영정 천장의 현판들

고 불평을 하는데 만약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장차 어떻게 쓰이기를 원하느냐”고 물었다. 이때 증점(曾點)이란 제자가 비파를 드문드문 타면서 친구들의 대답을 듣고 있다가 자신이 대답할 차례가 되자 “늦봄에 봄우이 만들어지면 관을 쓴 어른과 아이와 더불어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우에서 바람 쐬고 노래하며 돌아오겠습니다(浴乎沂風乎舞雩詠而歸)”라고 대답한 것에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김언거는 당시 소유(少尹) 윤원형(尹元衡) 일파에 가담하여 사림을 포함하는 등 인망(人望)이 없다가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언거는 당대의 유명인사는 물론이고 고향 선 후배들과 각별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보아 그가 오로지 권력만을 탐했던 인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풍영정에 걸린 현판과 시판만 해도 70여 점이 걸려 있고, 김언거 이후 풍영정을 노래한 인물과 작품을 모두 합해보면 약 250여 명, 300여 점에 해당한다. 이 숫자는 김언거와 후손들의 폭넓은 교유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풍영정이 단순한 누정(樓臺)이 아니고, 서로 만남을 주고받는 소통의 공간, 서로 작품을 짓는 시단의 공간, 학문과 예술을 논하는 문화의 공간 기능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풍영정을 언제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다. 보통 김언거가 벼슬을 그만두고 지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1560년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와 풍영정에서 지냈다고 한 것을 두고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풍영정을 노래한 작품 중 가장 연대가 오래된 것으로는 송인수(宋麟壽, 1499~1547)가 1543년에 지은 「제계진풍영정(題季珍風詠亭)」이 있고, 송순(宋純, 1493~1582)도 1543년에 송인수의 시에 차운한 것으로 보아 1540년 전후로 풍영정을 지은 것이 아닌가 하고 추정할 수 있다.

풍영정 마루에 올라서면 사방 뻗어있고 빈틈없이 들어찬 현판에 놀란다. 가히 현판의 박물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국의 단일 누정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중 ‘제일호산(第一湖山)’이라는 현판이 시선을 끈다. 이 글씨는 조선 중기의 명필 석봉 한호(石峯 韓濩, 1543~1605)가 썼다고 한다. 아마도 풍영정 누마루에 올라 앉아 정면으로는 무등산을 바라보고 사방으로는 일망무제로 트인 배경을 감상하면서 이곳이 바로 호남에서 가장 멋

진 풍광이 아니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쓴 것일 터이다.

풍영정 현판 글씨에 대해 재미난 이야기들이 전해진다. 명종이 정자에 걸 현판을 당시 기인이었던 갈처사에게 받아다 걸라고 했다. 김언거는 기쁜 마음에 여러 번 찾아갔으나 그때마다 헛걸음을 했는데, 여러 번 간청한 끝에 마침내 그를 만날 수 있었다. 갈처사는 칩냉쿨로 붓을 만들어 글을 써주고는 절대로 가는 길에 펴보지 말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김언거는 궁금함을 견디지 못하고 종이를 펼치자 그만 '풍' 자가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 김언거가 갈처사를 찾아가 다시 써줄 것을 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대신 갈처사의 제자 황처사에게 '풍' 자를 청해 받았다. 현재 풍영정 글씨가 마치 제각각으로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한다. 현판을 자세히 보면 '風' 자는 나머지 '詠亭'보다 자획이 조금 비뚤어져 있다.

임진왜란 당시에도 풍영정은 다행히 화재를 면했다고 한다. 왜란 당시 풍영정 옆 건물들이 다 타버리고 풍영정마저 불길에 휩싸이자, 현판 글자 가운데 앞의 '風'자가 오리로 변하여 극락강 위로 날아올랐다고 한다. 이를 기이하게 느낀 왜장이 즉시 불을 끄도록 하자 극락강의 오리가 현판에 날아들어 다시 글씨는 또렷이 되살아났다. 현재 현판의 '풍'자와 '영정'의 글씨체가 다른 까닭에 이런 전설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풍영정은 16세기 누정 건축이 활발했던 시대의 대표적 문화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과 더불어 살고자 했던 그 시대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가치개념이라고 생각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극락강은 유유히 흐르고 있지만, 4차 산업으로 대두되는 혁명의 시대에 인간다움은 점점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하고 사람들은 냉혹한 현실에 갈팡질팡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을까. 당대의 명사와 시인묵객들이 바람이 불어오는 곳 풍영정에서 세상을 이야기했듯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문정신을 논해야 한다. ♪



광주 광산구에 있는 풍영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새로운 전환과 과제



— 문화전당 운영, 어떻게 재설정할 것인가?

김기곤_ 광주전남연구원 사회환경연구실장

1. 들어가며

2020년 4월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부칙 제2조 규정에 의거해 문화전당 운영을 ‘일부 위탁’에서 ‘전부 위탁’으로 결정하는 시기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지난 4월부터 문화전당 성과평가 및 향후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핵심 공간인 문화전당이 국가기관으로서 위상을 지속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운영 주체와 방식을 재설정해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임박한 것이다.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국면에서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일은 내년 4월 이후 적용될 문화전당의 새로운 운영 방식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이다. 문화전당은 국비를 지원받는 국가소속기관이다.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문화전당이 지역에 미치는 문화적, 경제적 파급효과나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는 중대한 사안이다. 2020년 4월 이후 문화전당 운영 주체나 방식에 대한 합리적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부에서부터 활발한 논의를 본격화 할 필요가 있다.

2.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현황

2004년부터 시작되어 2023년까지 진행되는 조성사업은 국책사업임에도 과거 보수정부의 무관심, 사업의 의미와

* 편집자 주 본지에 게재된 발문은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문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누리집(<http://www.rcf.or.kr/>)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규모 축소 등으로 문화전당 건립을 제외하고는 다른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문화전당의 효과를 도시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5대 문화권 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원활하지 못한 예산 지원과 인력 부족 등으로 창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도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다.

조성사업 중에서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인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등의 분야도 최근 3년 평균 국비 반영률이 45%로 낮은 형편이다. 지역사회는 조성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신규사업 반영 확대 및 계속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증액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 또한 아특별 48조(시행령 38조)에 따라 조성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비율을 70%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성사업은 초기 기획단계에서 정립한 비전과 방향을 갖고 15년 동안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세 번 바뀌면서 조성사업의 의미, 규모, 추진 방식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한 바 있다. 사업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발생하고, 핵심 사업에 대한 공유가 부족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국책사업을 주관하는 국가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문제였다.

지역 내부에서는 사업을 자기 관점으로 수용하려 들면서 일관된 사업 진행보다는 다양한 갈등이 야기된 바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시대'를 내걸고 조성사업 정상화와 활성화를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을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만한 가시적 성과나 뚜렷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2018년 8월에 발표된 '종합 계획 제2차 수정계획'에도 정부의 결단 없이는 조성사업이 활성화 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됐다. 그러면서 초기 구상한 조성사업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사업 방향이 재조정되었다.

3. 문화전당 운영 논쟁 전사(前史) : 국가소속이나 법인화나

2013년 4월에 정부는 문화전당을 법인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문화전당 운영을 별도의 법인에게 위탁하자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문화전당의 교류 기능에 무게를 둔 안이었다. 지역사회는 아시아의 창조적 에너지를 전 세계로 공급하는 문화발전소 역할을 수행할 문화전당을 일반적인 공연전시 시설 중 하나로 위상을 낮추고 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반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인식했다.

광주지역 문화예술진영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바람직한 아특별 개정을 위한 범시민연석회의'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는 지역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2015년 1월 제출된 박혜자 의원의 개정안은 문화전당의 운영주체를 정부로 하되 일부만 위탁하자는 것이 핵심이었다. 문화전당의 공공성 추구를 전제로 전문성 보안을 위한 부분적 법인 위탁, 문화전당의 지속적인 운영과 발전을 보장하는 정부 재정지원 명시, 협치에 기반을 둔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2015년 3월에는 아특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역사회의 개정안 내용이 대부분 반영되었다. 문화전당을 국가소속기관으로 하되 일부 운영을 법인에 위탁할 수도 있도록 하고, 국가의 재정지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3년부터 시작되어 2015년에 종결된 아특별 개정안 논쟁의 핵심 내용은 전당 운영주체와 예산지원 방식의 문제였다. 문화전당 조직의 이원화와 서로의 기능 분담이 여전히 모호하게 규정되어 마찰이 예상되었지만, 오랜 논란 끝에 법인화 및 운영주체의 문제가 합의지점을 찾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지역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성과평가 후 전부 위탁은 중간지대의 타협물이다. 문화전당 운영 체계가 확정된 이후

지역사회에 남겨진 과제는 더욱 뚜렷해졌다. 문화전당에 지역의 문화역량이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조화하고, 지역사회가 문화도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자력화된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문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었다.

4. 2020년 이후, 문화전당 운영 방식에 관한 담론들

1) 문화전당 운영에 대한 새로운 담론들

현재의 아특법은 2020년 4월 13일까지 문화전당 운영에 대한 위탁을 규정하고 있고, 그 이후 정부는 문화전당에 대한 성과평가를 거쳐 문화전당 운영의 전부를 아시아문화원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아특법의 문화전당 관련 규정 근거〉

아특법 제27조 2항

- ② 문화전당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둔다.
- ④ 문화전당은 문화전당 운영의 일부를 제28조에 따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아특법 부칙 제2조

제27조 4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문화전당 운영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일부 위탁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까지로 하되, 그 이후 정부는 문화전당의 성과평가를 한 후 전부 위탁한다. (법률 제13218호, 2015. 3. 13.)

아래는 문화전당 운영 조직 재설정에 관한 논의와 가시화된 주체들의 입장이다.

(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전당을 운영하고 있는 문체부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과평가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온 후에야 이에 근거한 입장 표명이 공식될 수 있을 것이다. 문체부는 몇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역의 입장도 고려할 것이라는 말을 전하고 있지만, 2013년 아특법 개정안 시기 정부의 입장이었던 법인화를 중심에 놓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아특법 개정안 조항에 근거할 수밖에 없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문화원과 같은 법인에 전부 위탁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정상화에 책임성을 갖고 지역사회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광주시를 비롯한 지역사회 의견이 문화전당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지난 2019년 8월 22일에 열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실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정책 토론회.

(2) 광주시

광주시는 지난 5월 8일 문화전당을 국가기관으로 일원화 하자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법인화를 통한 전부 위탁이 아니라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지금의 구도를 국가기관으로 통합해 일원화하자는 의견을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건의했다. 문화전당 운영주체를 법인으로 일원화한다면, 콘텐츠 창·제작 예산 등의 국비예산 감소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국가기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문화전당은 공공성이 강한 창·제작, 교류협력 등을 위한 문화발전소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전당장을 정무직으로 하는 국가기관으로 하고, 수익사업 등이 필요한 부분만 아시아문화원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또한 문화전당이 문화발전소로서의 역할을 유지하도록 국립중앙박물관 운영체계(학예직)를 도입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3) 최경환 의원 발의

최경환 의원 등 16명의 국회의원은 2019년 8월 9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핵심은 “문화전당 운영의 일부 위탁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현재의 아특별 일부 개정 법률 부칙 제2조(문화전당 운영 위탁규정의 유효기간) 내용인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문화전당 운영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일부 위탁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까지로 하되, 그 이후 정부는 문화전당의 성과평가를 한 후 전부 위탁한다”에 5년을 10년으로 변경한 것이다.

2) 주요 담론의 의미 분석

(1) 문체부의 성과평가 기준과 과정은?

아특별 개정안 부칙 제2조의 “정부는 문화전당의 성과평가를 한 후 전부 위탁한다”는 규정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전부 위탁으로 결정되는 요인이 성과평가의 결과인지, 아니면 전부 위탁은 이미 정해진 길이고 성과평가는 단순히 절차상의 이행 사항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입장 발표에 앞서 소통의 과정을 밟았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문화전당 운영에 대해 각종 문제를 제기하고, 이슈들을 풀어가기 위해 앞장섰던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진영과 시민사회단체들과 최소한의 교감이나 논의도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 옳은 일은 아니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과평가에 대해 지역이 전혀 개입하지 못했다는 것도 문제이다. 문체부가 기관 운영자로서 성과평가의 주체가 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문화전당은 국가소속기관이지만, 문화전당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 성과평가의 방법과 절차, 기준과 지표 등에 대한 지역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맞는 것이다. 조성사업의 마무리 단계인 2020년 이후 문화전당의 효과를 도시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2) 광주시의 입장은 지역사회의 정서를 반영한 것인가?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내부의 협치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광주시가 문화전당 운영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광주시는 입장 발표에 앞서 소통의 과정을 밟았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문화전당 운영에 대해 각종 문제를 제기하고, 이슈들을 풀어가기 위해 앞장섰던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진영과 시민사회단체들과 최소한의 교감이나 논의도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 옳은 일은 아니었다.

광주시는 운영 주체를 판단하기 전에 문화전당 개관 이후 문화전당을 대하면서 느껴온 지역예술인과 시민들의 '불편한' 정서를 먼저 고려했어야 했다. 국가 운영에 대한 광주시의 생각과 시민들의 생각은 편차와 거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치 않고 광주시가 국가운영을 먼저 결정한 것은 '신속한 대처'로만 볼 수가 없다.

(3) 최경환 의원의 발의 과정과 내용은 지역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했는가?

최경환 의원의 개정안 발의는 문화전당 운영 문제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찾아 이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제도화된 법은 상징적 의미뿐만 아니라 강한 규정력을 갖기 때문에 법의 제정 과정은 보다 신중한 의사수렴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이 발의에 앞서 중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합리적 내용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사회 내부의 공론의 장을 거치지 않은 것은 매우 성급했다는 생각이 든다.

개정안은 문화전당 운영의 공공성과 운영 재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가 계속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와 같은 운영 방식을 5년 더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문화전당 운영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유력한 방안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국가가 계속 운영해야 할 이유를 구 도청 복원사업의 완료에 두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5. 문화전당 운영 주체 설정을 위한 고려 사항들

1) 새롭게 형성되는 문화지형과 결합

앞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문화전당의 운영 방식의 큰 윤곽은 ‘국가소속 기관에 의한 직접 운영’과 ‘민간 조직에 의한 법인 위탁’ 두 가지이다. 문화전당에 운영 대안은 보다 성찰적이고 보다 혁신적인 관점에서 여러 영역에서 형성되고 있는 문화지형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첫째, 법인화의 배경이 어디에 있는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법인화는 이윤 및 경쟁의 원리와 맞닿아 있다. 법인화는 시장은 언제나 옳다는 신자유주의 경제담론에 기반하고 있다. 문화전당이 갖는 역할과 기능은 문화적 공공성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둘째, 국가기관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여전히 유효한가이다. 문화공공성은 ‘사회구성원 누구나 편리하고 자유롭게 문화자원과 시설에 접근하여 문화향유의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예술 창조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문화기관의 문화공공성 실현은 운영 방식에서 개방성과 민주성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잘 실현되는가에 달려 있다.

셋째, 문화예술정책에서 자율성 확립 확대, 문화정책의 투명성 제고, 문화정책의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문화정책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현재 문체부의 역할과 조직 혁신에 대한 요구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 및 공공기관 중심 체계에서 나타난 운영의 폐쇄성, 관료주의, 성과주의 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문화전당 운영 주체 및 방식 선정에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문화분권과 자치가 문화행정의 주요 패러다임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자율, 분권, 협치 등 문화정책의 새로운 가치가 문화전당 운영에 적용될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문화전당과 지역사회와의 협치의 강화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문화전당과 지역 간의 협력이 새로운 차원에서 재구축될 수 있도록 문화전당 운영의 혁신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주체로 누가 더 적합한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 지역 주도적 관점에서 의견 수렴

앞으로 문화전당 운영 방식은 ‘국가의 직접 운영’과 ‘민간 법인 운영’이라는 구도 속에서 결정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2013~2015년 두 해 동안 진행된 ‘국가소속기관과 법인화’ 논쟁의 구도가 재현될 수도 있다. 그러나 두 가지 방식을 받아들이는 이해의 수준과 문화정책 환경은 5년 전과 동일하지 않다. 현재 새로 부상하고 있는 아특별 개정 국면의 핵심 의제인 문화전당의 운영 방식은 문화도시 조성사업 기간 종료 이후에 지역사회가 문화도시를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해 가는 데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가를 함께 고려했을 때 제대로 된 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

또한 국가기관과 법인화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 이 외에 제3의 방식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역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결집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현재의 문화전당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 5년 전 특별법 개정 논쟁 과정에서 제안되었던 5개원의 특성을 고려해 법인화와 정부 기구화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등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운영 주체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운영 방식에 대한 고민도 병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와 같은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이원체제 아래서 서로 간의 위상과 역할을 조정하는 문제, 문화전당에 지역의 문화예술인력의 참여를 일정 정도 보장할 수 있는 장치 등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문화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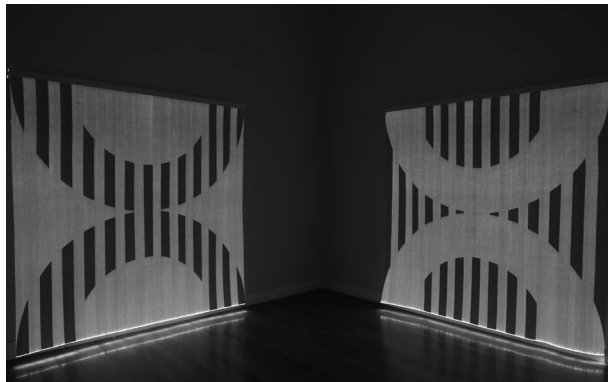
디자인이 펼치는 배려와 상생의 장

- 2019년 제8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휴머니티(Humanity)’

신호상_ 광주디자인센터 디자인비엔날레본부 책임



올해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관통하는 전시 주제는 ‘휴머니티(Humanity)’이다. 휴머니티는 인간(Humain)과 공동체(Community)의 합성어로, 이번 전시를 통해 공동체 및 인류 전체를 위한 상생과 배려, 인류애를 실천하는 디자인을 선보인다.



다니엘 뷔렌 작.

올해로 8회를 맞은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광주디자인센터와 광주광역시의 준비 과정 끝에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한다. 2년마다 찾아오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올해 9월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광주비엔날레관, 광주디자인센터,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광주광역시 일원에서 열리게 됐다. 총감독으로 이길형 홍익대학교 교수를 위촉했고 공동체와 인류애 등을 주제로 하여, 전시, 학술포럼, 산업전, 체험 등 디자인도시 광주를 빛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올해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관통하는 전시 주제는 ‘휴머니티(Humanity)’이다. 휴머니티는 인간(Humain)과 공동체(Community)의 합성어로, 이번 전시를 통해 공동체 및 인류 전체를 위한 상생과 배려, 인류애를 실천하는 디자인을 선보인다. 또한 디자인의 본질과 역할, 그 가치 실현의 이야기를 시민과 함께 공유한다. 디자인의 근본적 가치는 사람 중심의 사고에서 시작되어 인류 공동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므로, 그 역할의 중요성을 알리고 디자인적 다양한 실험을 통해 인류애를 실천하는 미래 비전과 방향성을 모색하겠다는 취지이다.

세부 전시에서는 휴머니티라는 대주제 아래서 다양한 소주제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주제전은 ‘사람을 노래하다(Humanity and Design)’라는 주제로, 인간 개개인의 삶의 단계에서 인류 공동체적 단계에 이르는 미래 사회의 지속 가능한

진보적 인간성을 디자인으로 제시되며, 인트로 부분과 연계하여 디자인이 인류의 사회, 경제, 산업의 변화에 미친 영향력과 미래의 디자인의 변화 방향과 활용성을 조망한다.

국제전은 '다음 세대에게 주는 선물(Humanity for next generation)'을 주제로, 현대 디자인의 출발점이었던 바우하우스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바우하우스의 정신과 오늘날 시대정신의 부합성을 재조명한다. 인간중심의 디자인 근본가치와 기원이 지난 100년간 지속 가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시민 민주주의가 발달한 북유럽의 인간 중심 디자인(Human-Centered)과 사회적 디자인(Social Design)의 사례를 통해 휴머니티의 국제적 패러다임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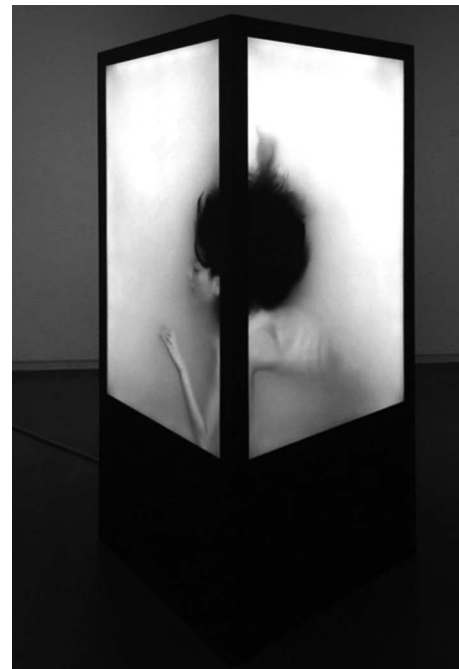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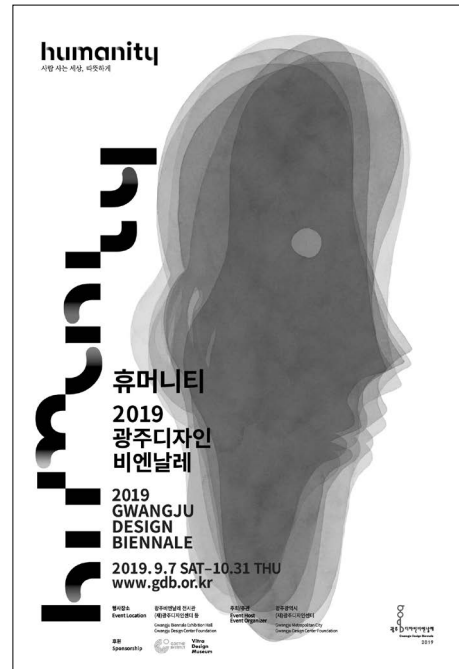
특별전은 '사람, 사람들을 위한 기술(Humanity by new technology)'을 주제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기술 속에 숨어 있는 공동체(humanity)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제시한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신기술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한편, 그 어느 때보다 공동체 정신이 요구되는 미래 사회의 전망을 보여준다.

체험형 전시는 '응답하라 너, 나 우리!(Humanity of communication)'를 테마로 한다. 디자인을 통한 사회혁신, 도시재생의 다양한 선진사례를 볼 수 있는 전시다. 체험형 전시에서는 우리사회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요소로서 인간애와 지역가치를 제시한다. 참여 디자이너가 전시작품을 발표하고 일반 시민과의 소통의 극대화할 수 있는 디자인 사례형 체험 프로그램 공간으로 구성되며,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농업, 물류, 취미, 여가 등 다양한 체험존을 운영한다.

산업관은 '광주다움, 광주 사람의 생각들(Local innovation and humanity)'이라는 테마로 광주의 산업, 문화, 미래를 제시하는 콘텐츠로 구성된다. 광주의 집약된 산업과 문화를 포괄하는 전시로서 광주다움과 광주사람들의 생각들을 살펴 볼 수 있는 전시이다. 이와 함께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여 지역 수출유망 제조기업 약 56개사의 100여 개 상품들을 비즈니스 소싱하는 대규모의 국제행사를 치를 예정이며, 광주비엔날레 본전시관에서는 수출유망 제조기업의 상품 전시와 지역 디자인상품을 현장 판매 운영한다.

올해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9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55일간 열린다.

광주 시민과 국내외 관람객들이 이곳 광주에서 디자인의 미래를 전망하고 디자인 속 휴머니티를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위 2019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포스터.
아래 김형기 작.

우리는 문학을 통해 같은 통점이 된다, 공통점

조은윤_ 독립잡지 공통점 편집인



우리에게 문학의 필요한 이유

사람들의 통점에 대해 생각해본 적 있다. 우리는 서로 다른 통점을 지녔기에 같은 일에도 서로 다른 정도의 슬픔을 느낀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같은 통점을 지니고 있기도 해서, 어떤 슬픔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옮겨오고 또 그렇게 타인에 의해 자신의 슬픔이 희석되고는 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까. 사람들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통점을 지녔다.

삶이란 원래 자기 자신의 아픔만으로도 충분히 힘겨운 것이기 때문일까. 사람들이 타인의 아픔에 점점 무감해진다는 느낌을 가끔 받는다. 누군가가 억울하게 상처 입고 때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도처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가끔씩만 분노하고 가끔씩만 슬퍼하며, 가끔은 지나치게 무심해진다. 하지만 삶을 살아오며 아픔을 겪어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알고 있을 것이다. 혼자서는 감내할 수 없는 크기의 아픔도 있다는 것을. 그런 아픔은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의 손을 빌려야 한다는 것을.

바로 그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문학이 필요한 이유다. 문학은 사람의 감정을 다루는 학문임과 동시에 언어로 삶의 기쁨과 슬픔을 재현하는 예술이다. 사회적인 생존을 위해 타인에 대한 이해와 감정을 차단해버리는 이 시대에서, 문학은 타인의 삶을 체험하게 해 사람들이 지닌 서로 다른 통점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문학을 통해 타인의 삶을 이해하고,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게 되며, 때로는 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위로를 얻기도 한다.

문학모임이자 독립잡지인 '공통점'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사람들은 서로를 구분하는 셀 수 없이 많은 차이점을 지녔지만, 서로의 같은 통점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다시 하나가 된다. '공통점'은 문학을 통해 '같은 통점이 된다'는 의미로,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차단하지 않고 문학이라는 매개를 통해 연대하겠다는 지향점을 갖고 있다.

문학모임, 그리고 독립잡지 '공통점'

문학모임 공통점은 지난 2016년 봄, 같은 학과에 재학 중이었던 동기와 선후배 세 명과 함께 문학을 공부하기 위해 시작한 소규모 문학 스터디였다. 일주일에 한 번 카페에 모여 서로가 쓴 글을 읽고 이야기 나누는 식이었다. 시작은 각자의 학업에 도움을 받기 위한 거였는데, 어찌다 보니 인원도 늘어나고 이런저런 대외활동도 함께 참여하게 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햇수로는 4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매주 하루의 저녁을 함께하며 서로가 쓴 글을 나눠 읽는 중이다. 재작년인 2017년부터는 이 글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연간으로 독립잡지를 만들고 있다.

올해로 3호를 발간한 공통점은 매년 다른 방식으로 잡지 발행을 시도하고 있다. 첫 번째 호는 구성원들끼리 조금씩 사비를 모아 소량으로 제작했고 두 번째 호는 청년센터의 지원금을 받아 제작했다. 그리고 올해엔 후원금을 받아 제품을 만든 다음 후원자들에게 완성된 제품을 돌려주는 클라우드 펀딩을 시도했다. 반응이 미지근하면 어쩌나하는 우려와 달리 결과는 성공이었고, 작년과 재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 번째 공통점을 만들 수가 있었다. 공통점의 지향성에 공감해주고 힘을 보태준 고마운 사람들 덕분이었다.

어느덧 세 번째 잡지를 발행하게 되었지만, 잡지를 만드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제작 과정에서 구성원들끼리 불화가 생기고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등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건 돈이었다. 첫 호를 만들었을 때 이미 적자를 경험했던 터라 세 번째 호에서는 그런 일이 없게끔 계획을 했었는데, 완벽한 계획은 무계획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게 이번에도 적자를 내고 말았다.

그런데 왜일까. 나는 실패했다는 기분은 들지 않는다. 독립잡지를 만드는 일이 그 대가로 돈이나 명예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경험과 가치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을 함께 만든 친구들이 느끼는 기쁨과, 이 책을 읽어주는 사람들이 느끼는 조그만 감동이, 내게 이 일을 계속할 힘을 주기 때문이다.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의 글을 읽고 어떤 위로나 감동을 얻을 수 있다면,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그보다 더한 기쁨이 또 있을까.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잡지를 만드는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 나는 이 책을 만들었던 경험을 통해 문학을 계속할 힘을 얻게 될 것 같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도 이 책을 통해 조그만 위로와 감동을 얻을 수 있었으면 한다. 문학을 함께 읽고 쓰는 사람이 있는 한, 공통점은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것이다. ♪



매 순간 작별을 하는 사람에게

- 김혜순 시인의 『날개 환상통』을 읽고



이서영_ 조선대 문예창작학과 대학원 석사 과정

분명 사람의 신체에는 날개가 없지만, 없는 것이 아프다고 하면 그 없음을 믿어야겠지요. 정확히 고쳐 말해보자면, 없음이 있는 그 자리를 믿어야겠지요. 그곳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들의 가능성과 무수하게 기획되는 꿈들을 믿어야겠지요.

마치 버퍼링에 걸린 영상처럼 더디게 흘러가는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비교적 늦게 더워진 것 같고, 이렇게 고온다습한데도 어딘가 음산하게 흘러가는 6월과 7월, 그리고 8월……. 마치 그림자처럼 스며들어와 나의 무력함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는 이 계절에 도통 애정이 가지는 않습니다. 온난화를 비롯한 각종 이상기후의 문제일까요. 혹은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2019년의 고통스러운 일들에서 오는 정서적 영향일까요. 모두의 카르마가 지층처럼 두텁게 쌓여가고 있겠지만, 이 음산하고도 지지부진한 느낌이 실은 무엇보다도 제 정신머리, 혹은 내 적풍경에 걸려있는 버퍼링에서 오는 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올해의 여름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며 비겁하게 탓해본 것이었죠.

나는 광주에서 시를 쓰는 20대여자사람입니다.

운명처럼 찾아오는 책이라는 표현은 썩 안 좋아하지만(차라리 책은 피부처럼 입어지는 일상이기를 바랍니다), 한편의 책을 덮고 나서 샘솟은 문장이 저렇게 명료했습니다. 광주에서 시를 쓰는 20대여자사람에게 던져지는 이 세계의 도전들은, 마치 게임미션처럼 흑흑 눈앞에 찾아와서 깨부수어 나가는 재미가 있긴 하지만, 사실 그때마다 내 신체에도 금이 짙게 생겨났습니다. 나쁜진 않습니다. 내 자신이라고 믿어왔던 것들(혹은 세계가 그제 너를 이루고 있는 성질이어야만 한다, 라며 강요해왔던 것들)이 깨져나갈 때 찾아드는 일시적 해방감과, 깨진 틈 사이로 스며드는 진실이 좋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내 속을 광폭하게 뚫고 내려간 당신의 언술은 언제나 고통이자 기쁨이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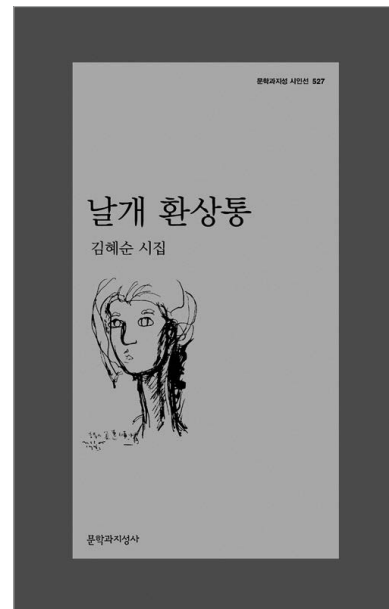
올해 3월, 문학과지성사에서 발간된 『날개 환상통』은 총 5부로 구성되어있고, 1부의 제목인 '사랑하는 작별'이라는 표현을 들여다 본 순간부터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아 이 책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 고통에 충실하겠구나,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떤 섬광을 가진 표현 앞에서는 논리적 납득 이전에 동의, 혹은 복종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작별을 사랑할 수 있다니. 그렇게 되어버렸다니. 물론 인간으로 태어나 이 시간성 위에 던져졌다면, 그 모든 작별을 받아들여야만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든 슬픔들 도무지 못 배기겠지…….

어떤 섬광을 가진 표현 앞에서는 논리적 납득 이전에 동의, 혹은 복종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작별을 사랑할 수 있더니. 그렇게 되어버렸더니. 물론 인간으로 태어나 이 시간성 위에 던져졌다면, 그 모든 작별을 받아들여야만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든 슬픔들 도무지 못 배기겠지…….

당장에 시를 쓰는 일부부터 작별의 일부입니다. 시야말로 이전의 신체와의 분명한 작별이 있어야하는 장르니까요. 어찌면 시는 아주 완고한 편견을 만들고, 훗날이 닥쳐올 때 스스로 그것을 찢어내는 일이겠지요. 한 편을 쓰고 나면 그 한 편을 이뤄낸 모든 것들을 잘게 조각내서 찢어내야만 한다. 그러한 생각이 들자마자 당신은 이전 시집 『피어라, 돼지』를 찢어서 날립니다. (174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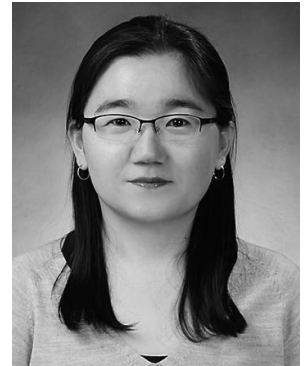
당신에게 편지를 적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찢어볼 수 있는 것들은 다 찢어보고 있는데 어째 눈앞이 다 막혀있는 기분입니다. 누가 기다란 천을 가져와 내 눈 위에 퐁퐁 싸맨 것만 같습니다. 이런 심경 속에서 최근 그린 시 문학상을 수상한 『죽음의 자서전』 번역판 표지그림은, 지금 이 세상에서 시 쓰고 있는 모든 여자들의 상황을 너무 정확하게 표현한 것만 같습니다. 눈이 퐁퐁 가려져있으며, 이불에 눌러있는 것처럼 누워있으며, 마치 보이지 않은 손이 함부로 움켜쥐고 있는 것처럼 양쪽 가슴이 길게 늘어져 있고, 결국 자기 자신의 것으로 보이는 피를 링거의 형태로 수혈 받고 있는 그 그림-. 광주에서 시를 쓰는 20대 여자 역시 가만히 누워서 생각합니다. 가장 무력하거나 고통스러울 때, 내가 지켜내지 못한 온갖 것들에 대해 죄책감이 쏟아질 때면, 누군가의 얼굴을 쓸어내리는 것처럼 당신의 시집을 쥐었던 것 같습니다. 텍스트 위에 스스로를 눕혀낸 뒤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나는 오로지 나를 무너뜨리는 문장만을 믿습니다. 정확히는 내 신체에 쌓인 세상의 습관들과 이 세계가 맺고 있는 무의식적 체결을 깨뜨리는 힘을 믿습니다.

기꺼이 다 무너지고 나면 숨게 됩니다. 잠깐이라도 숨을 곳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사각형 원룸에 혼자 누워 올려다본 천장은 빛바랜 네잎클로버무늬로 한가득 채워져 있는데, 막연한 행복을 바라는 누군가의 마음이 덕지덕지 발라져있는 것 같아 어쩐지 무력해져버린 사람에게 잘 어울립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누워있을 수도 없고 숨어있을 수도 없어. 이제 나는 몸이라는 새장을 질질 끌고 거리로 나서며 너무 무겁다, 아프다, 계속 중얼거리더라도 거리로 나가야 한다. 그렇게 당신이 내 세계 위에 부드럽게 찢어낸 자국 위로 걸어갑니다. k, 이 글을 언젠가 당신이 볼 수 있을까요. ♪



2019년의 어느 날, 선조들이 겪었던 고난의 바다를 만나다

— ‘아시아의 표해록’ 전시전에서



김미선_ 전남대 인문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더운 여름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라이브러리파크를 찾았다. 2019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연계하여 2019년 7월 10부터 10월 27일까지 개최되는 테마 전시인 <아시아의 표해록 - 바다 건너 만난 이웃>을 보기 위해서였다.

풍랑을 만나 표류한 후 이웃 나라에 표착, 고생 끝에 고국으로 돌아온 일을 기록한 표해록(漂海錄)은 연구자로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다. 필자는 조선 성종 때 추쇄경차관으로 제주도에 있던 중 아버지의 상을 당해 고향인 나주로 향하다 표류, 중국을 거쳐 조선으로 돌아온 일을 기록한 최부의 『표해록』을 연구하여 석사학위논문을 쓴 적이 있다. 또 표류는 아니지만 임진왜란기 해외체험 포로실기를 주제로 박사학위논문을 작성했는데 이 주제도 바다와 연관이 깊었다. 이후 호남 문집 소재 일기,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를 연구하면서도 일기형식으로 된 표해록은 연구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아시아권의 표해록을 주제로 한 전시의 개최 소식은 매우 반가웠다.

푸른 바닷빛으로 꾸며진 감각적인 전시장 입구에서부터 선조들이 겪었던 바다를 상상할 수 있었다. 전시는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입구를 들어서면 먼저 아시아의 주요 표해록 연표가 한쪽 벽면을 채우고 있어 시기별로 대표적인 작품을



한눈에 볼 수가 있었다. 1부 전시 '아시아의 표해록'에는 각각 '한국의 표해록', '중국의 표해록', '일본의 표해록', '베트남 표해록'으로 나누어 있었다. 각 나라별 주요 표해록 설명이 있고, 책이 전시되어 있는데, 표해록 속 그림도 볼 수가 있었다. 전시된 표해록 중 일본의 『조선표류일기』, 베트남의 『일본견문록』 등은 국내에 최초로 소개된 것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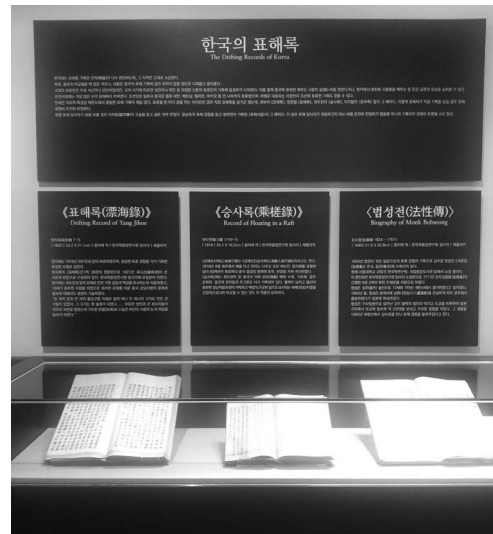
2부는 '풍랑을 헤쳐 아시아를 만나다'로, 책이 아닌 표해와 관련된 다양한 물품을 전시하고 있었다. 아시아의 계절풍-해류에 대한 설명 자료, 아시아의 언어에 대한 설명 자료, 당대의 주요 지도, 배 모형과 나침반, 의복, 가옥 모형 등이 그것이다. 풍랑을 만나 배가 방향을 잃은 상태에서는 해류를 따라 흘러가게 되고, 때로는 다른 나라까지 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해류, 지도, 배 모형 등은 표류 관련한 중요한 전시 자료라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나라에 도착한 후 생애 처음으로 다른 언어를 듣게 되고, 낯선 나라의 의복, 가옥 등을 보게 되는데, 2부에는 이러한 것들이 집약적으로 전시되어 있었다.

3부는 '콘텐츠로 만나는 표해'로, 표해록 내용을 옮겨 적은 것으로 보이는 큰 종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한쪽 벽면에는 인간의 감정인 '희', '노', '애', '락'이 큰 글씨로 새겨져 있고, 글자 주위에 표해록 속 기쁨[喜], 노여움[怒], 슬픔[哀], 즐거움[樂]이 드러난 구절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맞은 편 벽면에는 표해를 주제로 한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다. 필자가 갔을 때는 EBS에서 제작한 표해록 관련 다큐가 상영되고 있었으며, 전시 리플렛을 보면 영화, 만화, 공연콘텐츠도 상영되는 걸 알 수 있었다. 아울러 공간의 한 가운데에는 표해록과 관련한 현대의 다양한 책들이 있었다. 책들 속에 필자의 저서도 있어 더욱 반가웠다.

생각보다 규모가 크지 않았지만, 표해록 관련 중요 요소들이 들어있는 알찬 전시회였다. 표해록 책 자체를 보고, 표해 관련 당대 문화를 보고, 표해록의 현재적 활용까지 한 눈에 볼 수가 있었다. 그런데 전시회를 보고 나오는 발걸음이 가볍지가 않았다. 표해록 너머 당대 선조들이 바다에서 겪었던 고난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14일간 바다를 표류했던 최부와 그의 일행은 죽을 것이라 생각해 시신 유실 방지를 위해 이불을 찢어 횡목에 몸을 묶기도 하고, 오줌을 먹기도 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 나간다. 겨우 도착한 섬에서는 도적들을 만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중국 경계에 도착해서도 왜구로 의심을 받는다. 그래도 최부는 그나마 일행 42명과 함께 모두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와 다행이라 할 수 있다. 18세기에 제주도에서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출항했다가 표류하고 유구국의 섬에 표착, 안남국 상인들의 도움으로 고국으로 돌아온 일을 기록한 장한철의 『표해록』을 보면 29명의 일행 중 단 8명만이 살아남는다.

전시회의 부제는 '바다 건너 만난 이웃'이고, 2부의 제목은 '풍랑을 헤쳐 아시아를 만나다'로, 제목들을 보면 표류를 통해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 가 교류하는 것이 부각된다. 그런데 필자의 눈에는 의례에 대한 설명 중 "표류하다 살아남은 이들이 현지에서 가장 많이 경험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상제였다. 같이 간 이들이 병이 나거나 사고로 죽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라는 문구가 아프게 들어왔다.

전시장이 있는 라이브러리파크 앞 아시아문화광장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더운 여름을 맞이해 시민들을 위한 어린이물놀이장이 개장해 아이들이 놀고 있었기 때문이다. 선조들이 겪었던 고난의 바다를 보고 나와, 너무나 해맑게 물놀이를 즐기는 현재의 아이들을 보면서, 순간 현재의 소중함을 느꼈다. 지금 이 순간, 아이들을 웃게 해 줄 수 있고 선조들이 남긴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



왜 남도인은 안중근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까?



노성태_ 국제고 역사 수석교사



하얼빈 안중근 의사 기념관

2019년, 올해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격살한 지 꼭 110주년이 되는 해다. 100주년에 이어 올해도 안 의사를 기리는 행사가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다. 광주시 교육청도 교사 및 학생 연수단을 꾸려 의거지인 하얼빈과 순국지인 뤼순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1909년 10월 26일 안 의사의 하얼빈 역 의거는 일제의 침략에 맞선 한국인의 기개와 당당함을 전세계에 알린 일대 사건이었고, 봉오동, 청산리의 독립군 대첩과 이봉창, 윤봉길 의사 등이 일제의 심장 을 총칼로 겨누 출발이 되었다. 오늘 안중근 의사가

한국인의 가슴 속에 가장 뜨거운 인물로 남아 있는 이유다. 때문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의 정신을 기리는 기념물이 많다.

안 의사의 흔적이 남아 있는 대표적인 장소는 그가 태어난 황해도 해주와 삼흥·돈의학교를 세워 애국계몽운동을 벌였던 진남포, 연추의병을 결성하고 단지를 잘라 이토 격살을 다짐했던 연추하리(지금 크라스키노), 의거지인 하얼빈, 순국지인 뤼순 감옥 등이다.


삼흥·돈의학교를 운영했던 진남포에는 ‘애국열사 안중근선생기념비’가 서 있고, 1909년 3월 단지를 잘라 이토 격살을 다짐했던 연추 하리에는 단지동맹비가, 의거지인 하얼빈 역내에는 별 7개 문양이 새겨진 삼각형 모양의 의거지 표석이, 그리고 하얼빈 역사에는 안중근의 일생을 정리한 안중근기념관이 건립되어 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자신이 죽으면 묻어달라고 했던 하얼빈 공원(지금 조린공원)에는 ‘푸른 풀이 돌아나는 언덕’이라는 독립의 희망을 쓴 ‘청초당(靑草塘)’이라는 글씨와, 이백의 시를 차운한 그의 시 ‘망여산오로봉(望廬山五老峰)’에 나오는 ‘연지(硯池)’를 앞뒤로 새긴 뒤 단지된 모습의 수인(手印)이 새겨진 비가 서 있다. 그리고 그가 순국한 뤼순 감옥에는 1909년 11월 3

일 밤부터 1910년 3월 25일 밤까지 144일 밤을 지낸 감방이 '조선애국지사 안중근을 구금한 감방'이라는 이름으로 보존되어 있다. 뤼순감옥 가까이에는 안 의사가 열한 차례의 심문과 여섯 번의 공판 끝에 사형선고를 받은 관동법원도 남아있다. 관동법원 법정에는 안 의사가 이토 격살의 죄목을 만천하에 고한 장소다.

감방 안은 침대 하나가 놓여있고 '국가안위노심초사(國家安危 勞心焦思)' 등 200여 점의 유묵과 '안응칠 역사', '동양평화론'의 서(序) 부분을 집필한 책상 하나가 당시의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그리고 안 의사가 1910년 3월 26일 교수형을 당했던 장소에는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보낸 하얀 한복 수의(囚衣)을 입은 안 의사 영정이 놓여있다. 이곳에서 안 의사는 공소(항고)를 포기한 채 일제에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대한의 남아답게 순국한다. 일제가 안 의사를 교수형에 처한 시간이 10시였다. 10시, 그것은 이토가 9시 30분 안 의사의 총을 맞고 죽은 10시, 그 시간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일제의 치졸한 보복이었다.

국내에도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기념 시설이 많다. 1971년 개관한 서울 남산의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 안 의사 동상과 기념비, 유묵비 등이 서 있다. 그런데 안 의사 기념시설이 광주·전남, 즉 남도 지방에 유독 많다. 1957년 우리나라 유일의 안중근 사당인 해동사(海東祠)가 장흥군 장동면에, 심산 김창숙 선생이 주도한 우리나라 최초의 안 의사 숭모비(崇慕碑)가 전남인이 앞장서고 전 국민이 호응해서 1961년 광주공원에 세워진다. 전국 15개 안중근 동상 중 5개가 광주·전남에 있다. 5개 중 최초의 안중근 동상은 처음 남산에 건립되었다가 광주상무대로 옮겨진 후, 상무대가 장성으로 이전할 때 또 옮겨진다. 안중근 동상은 광주 중외공원과 상무공원, 함평 김철 기념관과 정동진에도 서 있다.

안중근 의사는 살아생전 한 번도 남도 땅을 밟아본 적이 없다. 그런데 왜 무장독립운동의 출발을 알린 안중근을 기리는 기념물이 남도에 집중되어 있을까? 이는 안 의사의 시대정신과 남도인들의 정체성이 맞아 있기 때문은 아닐까 싶다. 남도는 박상이 목숨을 걸고 '신비복위소(愼妃復位疏)'를 올려 정의로움의 깃발을 든 이후, 항일과 독립, 민주화를 쟁취해 낸 실천지였다. 임진왜란 3대첩은 호남인들에 의해 기록되었고, 호남은 반외세를 부르짖은 동학의 최대 거병지였을 뿐 아니라, 한말 최대 의병항쟁지였다. 1909년의 경우 참여 전투의 47.1%, 참여 의병수의 60%가 호남인이었음은 그 증거다. 또한, 광주는 3·1운동 이후 최대 항일독립운동인 광주학생항일운동이 불붙은 발원지였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해낸 '당당함'과 '정의로움'이라는 정체성을 실천한 지역이었다.

왜 남도인은 안중근의사를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을까? 안 의사가 추구한 '정의로움'과 '당당함'이 우리 지역민의 정체성과 딱 맞아 떨어진 때문은 아닐까 싶다. 24년 동안 자취를 감췄다가 다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전국 최초로 광주공원에 건립된 '대한의사안공중근숭모비(大韓義士安公重根崇慕碑)'가 다시 중외공원 안중근 의사 동상 곁에 재건립된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나주 채석장에서 우연히 발견된 대한의사안공중근숭모비

제18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광주에서



이명란_ 시인, 문학 강사

광주에서 열린 지구촌 최대의 수영축제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지난 7월 28일 폐막했다. 대회의 로고는 개최도시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과 영산강을 형상화했고, ‘평화의 물결 속으로(Dive in Peace)’라는 슬로건에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드높여온 광주 시민들의 인류 평화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다. 마스코트로는 무등산과 영산강에서 서식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수달(수리, 달이)을 남녀 한 쌍으로 의인화했다.

대회는 경영, 다이빙, 수구, 아티스틱 수영, 하이다이빙 등의 종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국제수영연맹(FINA) 회원국 193개국의 임원 및 선수, 미디어 관계자 등 총 7,266명이 참가했다. 선수만 2,995명에 달하는 규모로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대회가 바로 이곳 광주에서 열린 것이다. 경기는 남부대학교와 조선대학교, 영주종합체육관 등 광주의 요지 곳곳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개회식은 7월 12일 광주여자대학교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폐회식은 7월 2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열렸다.

대회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꼽으라면, 7월 16일 남부대 수구경기장에서 열린 여자수구 조별리그 2차전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여자수구 대표 경다슬이 날린 슈트 상대팀 러시아의 골문을 통과한 바로 그 순간, 대한민국 여자수구의 역사적인 첫 골이 탄생한 순간이었다. 1등도, 1승도 아닌 여자수구 역사상 첫 골. 지난 5월 결성되어 불과 두 달 만에 세계무대에 처음 서게 된 여자수구 국가대표에게는 무엇보다 간절한 목표였으리라. 그전까지 우리나라에는 여자수구 국가대표가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 수구를 배우거나 훈련하는 선수들도 국내에는 전무했다. 개최국 자격으로 이번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경영선수 출신으로 급히 꾸려진 여자수구 대표팀. 짧은 준비 기간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대회를 준비해온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한 골이 소중했다.

64대 0이라는 패배. 한국 여자수구 팀은 헝가리 팀과 맞붙은 조별리그 1차전에서 그야말로 대패를 했다. 하지만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매 경기마다 서로를 다독이며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그 결과 러시아와의 경기에서 여자수구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천금 같은 첫 골을 기록할 수 있었다.

7월 21일부터 28일까지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경영도 기억에 남는 볼거리 중 하나였다. 자유형, 배영 등의 세부 종목에 대한민국 선수로 수영계의 샛별 임다슬 선수와 김서영 선수가 참가해서 분전했지만, 아쉽게도 메

광주에서 펼쳐진 이번 대회에선 유독 끈기와 열정으로 만든 감동적인 순간이 많았다. 대한민국의 선수들을 비롯해 전 세계의 수영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동료들을 향한 따뜻한 애정으로 이번 대회를 주목하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해주었다. 다음 아님 이곳 광주에서 선수들이 만들어내는 감동적인 장면들을 볼 수 있어 기뻐다.

달 획득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끝까지 노력하는 선수들을 보며 앞으로 우리나라 수영계가 더욱더 발전할 것임을 기대할 수 있었다.

이번 대회에서 아쉬움이 있다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입는 유니폼에 로고가 없었을 정도로 관계자들의 준비가 미흡했다는 점이였다. 조금 더 세심하게 준비가 되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수영의 자랑이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마린보이 박태환이 출전하지 못했다는 것도 무척 아쉬웠고, 북한 대표단의 참가가 무산되었다는 점도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광주에서 펼쳐진 이번 대회에선 유독 끈기와 열정으로 만든 감동적인 순간이 많았다. 대한민국의 선수들을 비롯해 전 세계의 수영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동료들을 향한 따뜻한 애정으로 이번 대회를 주목하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해주었다. 다음 아님 이곳 광주에서 선수들이 만들어내는 감동적인 장면들을 볼 수 있어 기뻐다.

지난 7월 27일에 폐막식이 진행되었지만, 대회가 완전히 막을 내린 것은 아니었다. 8월 5일부터 8월 18일까지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부대행사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마스터즈 수영대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두 달 동안 진행된 수영대회로 인해 즐거운 추억거리가 많이 남게 되었다. 이번 수영대회에 참가해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대회를 빛내준 각국의 수영선수들, 오랜 기간 대회를 준비한 임원진들과 광주시민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



16일 펼쳐진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여자수구 경기에서 한국의 경다슬이 역사적인 첫 골을 넣고 환호하고 있다. 경기는 러시아에 30대 1로 패했지만 여자수구 대표의 값진 첫 골이 터진 경기인이라 경기가 끝난 뒤 선수들은 서로를 부둥켜안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재단소식

[재단소식]

•사업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실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열려



지난 8월 22일(목)에 시의회 예결위원회의실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 실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2020년 4월에 조성사업의 핵심 기반시설인 문화전당의 운영 방식이 결정이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김학실 교문위원장의 사회로 발제는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사회환경연구실장, 토론자로는 황병하 조선대교수, 조덕진 무등일보 아트플러스 편집장, 양균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산업본부장, 그리고 우리 재단의 이기훈 상임이사가 참여하였다.

광주사회혁신플랫폼 문화분야 사회혁신 원탁회의 개최



지역의 문제를 주민과 시민사회가 제안하고 이에 대하여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사회가 지혜를 모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 협업 프로세스 '광주사회혁신플랫폼'이 문화 분야 원탁회의가 지난 7월 25일 문화전당에서 열었다. 이날 원탁회의에서는 지역의 시민문화단체가 문화분야 의제로 제안한 '청년문화공간 운영', '장애인문화센터 건립',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개방',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창작공간 건립', '광주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활성화사업' 등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중점 토론했다.

2019 광주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활성화 제1차 자문위원회 열려



우리 재단이 주관하는 '2019년도 광주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활성화' 사업이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연구 조사 사업에 착수했다. 지난 6월 24일 오후 5시 재단 사무실에서 이기훈 상임이사와 김덕진 책임연구원(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장, 광주교육대 교수), 배은유 연구원 등이 참석하고, 자문위원으로 노영기 조선대 교수, 노성태 국제고 수석교사, 류영국 한국도시계획학회 지식나눔센터장, 이향준 전남대 교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활성화 사업 제1차 자문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김덕진 교수는 사업보고를 통해 “올해 사업은 크게 홈페이지 개편과 광주인물 DB에 기반한 광주역사문화자원 인물편 책자 발간, 광주역사문화자원 DB 추가 발굴 조사 등을 수행할 계획이며, 특히 인물 DB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자문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DB자료의 정확성을 갖추어 기초 자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자료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토록 할 것 •스토리텔링 과정에서의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할 것 •인물 스토리텔링에서 전개방식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확보할 것 등을 제안했으며, 향후 인물 스토리텔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인물 DB와 추가 인물에 대한 선정 작업을 빠르게 진행키로 했다.

•연대

2019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워크숍 열려



우리 재단이 간사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광주문화도시협의회(이하 문도협) 워크숍이 지난 7월 3일(수) 오후 5시, 극단 연인 아트 카페 연인 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계획 •광주사회혁신플랫폼 참여 •2020총선 본 협의 회 대응 건을 주요 논의 안건으로 다뤘다.

광주사회혁신플랫폼 및 2020총선 대응 기구가 구성되면 본 협의회는 적극적으로 참여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지난 6월 26일(수) 개최된 '민선 7기 1년, 문화도시 광주! 제대로 가고 있나?' 포럼에서 도출된 정책 제안은 공동주최단체와 협의하여 사업과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민선7기 1년 진단 및 평가를 위한 생통포럼 열려

민선7기 1년을 맞이해 광주시 문화정책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생 통포럼(생생하게 통하는 광주 포럼)이 지난 6월 26일(수) 오후 3 시에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은 광주문화 도시협의회, 광주민예총, 상상실현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고, 우리 재단을 비롯해 진도북놀이보존회 내드름, 전통문화연구회 얼 수, (사)광주장애인문화협회 등이 공동주관, 광주시와 아시아문 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시민연대가 후원으로 참여했다.

토론회 사회는 송진희 호남대학교 예술대학장, 발제는 박호재 아시아문화학회 부회장과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사회환경연구 실장, 토론자는 선재규 광주문화재단 정책기획실장과 박향 광주



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이 참여했으며, 박흥근 나무심는건축 인 운영위원장, 이현미 광주민예총 사무처장, 정진삼 광주장애 인문화협회장, 윤준혁 상상실현네트워크 사무처장은 패널로 참 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공동 대응 및 지역의 문화 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이 제안되어서 이를 적극 검토키로 하고 후속조치를 진행키로 하였다.

•조직

제7차 정기 임원회의 개최



2019년 제7차 임원회의가 지난 8월 14일(수) 오후 6시에 개최됐 다. 이날 모임에서는 임원 문화나들이 및 워크숍, 하반기 주요회 의, 신입회원 환영 및 송년한마당 개최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광주역사박물관 건립 및 문화전당 법인화와 관련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참여하고 있는 연대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공론의 장을 마련키로 하였다.

재단소식



임원 문화번개팅 '한 여름 밤의 흥' 열려



임원 문화번개팅 '한 여름 밤의 흥' 모임이 오형근 후원회장 주관으로 지난 7월 30일(화) 20여 명의 임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모임은 7월 임원워크숍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기되면서 임원 문화나들이를 겸한 임원워크숍 준비 모임의 성격으로 열렸다. 한편 이날 모임에서는 당초 8월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각 의결 단위 회의를 문화나들이 및 임원워크숍으로 대체기로 했다.

[회원소식]

진시영(미디어아트 작가) 운영위원, 미디어파사드-아프리카 타악 어우러진 '빛의 교향곡'



광주문화재단이 '2019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대회'를 기념해 특별 기획한 미디어파사드 융·복합 공연 '빛의 교향곡'이 8월 10일 오후 8시 전통문화관에서 펼쳐졌다. 한국의 사계(四系)를 재해석한 미디어파사드에 춤과 음악, 그리고 아프리카 타악이 하모니를 이룬 이번 공연은 광주를 찾는 선수단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특히 아프리카 타악그룹 '아나포'의 쟼베 공연은 평화를 상징하는 아프리카 전통악기인 쟼베를 관객과 함께 연주하는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로 진행돼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를 전 세계에 타전했다. 미디어파사드는 건물의 앞쪽을 뜻하는 '파사드'(Facade)와 '미디어'(Media)의 합성어로 건물 외벽에 영상

콘텐츠를 투사하는 기법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미디어아티스트 진시영이 전통문화관 한옥건물인 서석당을 배경으로 미디어파사드를 선보였다.

진시영 작가는 미디어아트의 다양한 기법을 활용, 빛과 퍼포먼스를 주제로 작업하고 기획하는 예술가이다. 2012년 제1회 광주 미디어아트페스티벌 총감독을 역임했으며, 광명동굴 '빛의 연대기', '빛의 페스티벌', 도감사 '월인천강', 2019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등의 미디어파사드 영상 콘텐츠를 제작했다.

- <광주매일신문> 발췌

김양균(전통문화연구회 얼썩 대표) 운영위원, 타악 퍼포먼스와 미디어아트 결합



전통문화연구회 얼썩이 지난 7월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타악 퍼포먼스와 미디어아트가 결합된 '인수화풍' 공연을 열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하는 이번 공연은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기획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번 공연의 주제는 '자연'으로, 물, 불, 바람을 각종 악기로 묘사하며 자연의 탄생·소멸을 표현했다. 미디어아티스트 박훈규와의 협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서는 대형 LED화면을 통한 미디어아트 영상작품 상영이 함께 이뤄졌다. 1992년에 창단한 전문타악그룹 얼썩은 전통타악을 기반으로 전통·퓨전 타악을 실험하고 창작하는 그룹이다. 대촌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 운영과 함께 매해 공연예술축제 광주예술나장 굿판을 주최하고 있다.

- <광주일보> 발췌

양혜령(치과 의사) 이사, 송죽로타리클럽 회장 취임

광주동구치과 의사 양혜령 회장이 국제로타리3710지구 '광주 송죽로타리클럽' 제27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지난 7월 10일 광주 송죽로타리클럽 임원 이취임식에는 박동호 총재, 김광태 前 총재, 이정재 광주교육대 2대 총장 등 여러 내외빈과 회원들이 참



석했다. 이날 27대 회장에 취임한 양혜령 회장은 지난 1년간 클럽을 잘 이끌어준 박종경 회장 및 임원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앞으로 임기 동안 국제로타리 테마를 받들어 풍부한 재능과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려 깊은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실천에 나서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 <치과신문> 발취

백수인(조선대 교수) 이사장-이철우(전남대 교수) 이사, 장흥출신 교수회와 군정발전 간담회 개최



전남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지난 6월 14일 군청 상황실에서 장흥출신 교수회와 군정발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흥교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전남대 이철우 교수를 비롯해 백수인 조선대 교수 등 10여 명의 교수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정종순 장흥군수와 부서장들이 배석해 군정현안에 대해서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장흥교수회는 장흥군 출신 교수들로 이루어진 모임으로 2016년 8월 창립됐다. 창립 후 지난 3년 동안 고향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의 역할을 맡고 있다. 장흥군 출신 교수는 전국에 40여 명 정도이며, 매년 행정에 군정발전 자문단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날 장흥교수회 회원들은 군정 역점 추진사업 설명을 들은 후, 군정발전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남겼다.

- <뉴스웨이> 발취

이연수(호남대 교수) 이사, 호남대 신방과 주한 EU대표부 UCC 우수상 수상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학과장 한선) 학생들이 주한 EU대표부에서 시행한 유럽연합을 알리는 UCC 제작에 참여해 우수상, 특

별상, 참여상 등을 수상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호남대는 신문방송학과 박천휘(4년), 문우진(4년), 용유영(2년) 팀(지도 김명중, 이연수 교수)이 주한 EU대표부가 유럽연합을 홍보하는 UCC 제작 콘테스트에서 우수상(Excellent award)을, 양나운(3년) 씨 등 11명의 학생들이 특별상과 참여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유럽연합(EU) 28개국의 역사와 정책, 한국과의 인적 물적 교류확대 등을 알리기 위해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와 주한 EU대표부가 공동기획했으며, EU의 공공외교 일환으로 본부차원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것이다. 호남대 학생들은 김명중, 이연수 교수의 지도를 받아 지난 2018년 여름방학부터 영상을 제작해 왔으며, 모두 8편의 EU 홍보 UCC를 완성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박천휘군(4년)은 “홍보영상 제작과정에서 EU를 더 많이 알게 됐다”며 “유튜브 시대에 전공을 살리는 소중한 기회를 준 EU측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미하엘 라이터리 주한 EU대표부 대사는 “제작한 영상물이 협력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며 “올해에도 이 사업이 계속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광남일보> 발취

송진희(호남대 예술대학장) 부이사장, 호남대 여교수회, 광산구 가족센터서 재능 나눔 발대식



호남대학교 여교수회(회장 송진희 예술대학장)는 20일 광주광역시 광산구가족센터에서 재능나눔 발대식을 가졌다. 또한 지난 5월 체결한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과 발전을 위한 협약 내용을 토대로 광산구 거주 다문화 여성들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재능기부 첫 번째 강의로는 다문화 여성들의 한국사회 적응과 대인관계에 필요한 호감을 주는 이미지 전략을 제시했다. 송진희 회장은 “교수들의 따뜻하고 열정적인 재능기부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국대학신문> 발취

함께하는 사람들

재단법인 지역문화교류재단 임원현황

이사회

〈이사장〉

백수인 조선대 국어교육과 교수

〈부이사장〉

김덕진 광주교육대 사회교육과 교수

송진희 호남대 예술대학장

안태기 광주대 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

오형근 무등정책포럼 대표

정광민 건축사사무소 서로 대표

〈상임이사〉

이기훈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

〈이사〉

김대현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 성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광주대 초빙교수

김영주 (주)광주전남ICT협회 회장

김정희 시인

김하림 조선대 중국어문화학과 교수

남성숙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

노성태 국제고등학교 수석교사

류영국 한국도시설계학회 지식나눔센터장, 지오시티(주) 대표

박요주 세무사

서순복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

선현주 (주)선앤김메디팜 대표이사

양혜령 치과의사

오건규 화가

이민원 광주대 세무경영학과 교수

이승권 조선대 프랑어과 교수

이연수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철우 전남대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정현애 오월어머니집 관장

〈감사〉

윤만식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 이사장

차일헌 세무사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안태기 광주대 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

〈부운영위원장〉

박홍근 포유건축사사무소 대표

박신영 소설가

〈운영위원〉

강성욱 전 광주컨벤션뷰로 사무처장

구용기 사적문화보존시민모임 대표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사회환경연구실장

김성수 SDC Korea 대표

김양균 전통문화연구회 얼썬 대표

김옥렬 광주전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상임대표

김향득 사진작가

김혜선 광주과학기술원 CT연구소 연구원

김혜영 (사)광주관광발전연구소 이사장

정성구 (주)도시문화집단CS 대표

조재용 비콘컴퍼니 대표

주 흥 화가, 샌드애니메이션 작가

진시영 미디어아트 작가

이상필 동신대 교수

한 선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연구소 기획위원회

〈연구소장〉

김덕진 광주교육대 사회교육과 교수

〈기획위원〉

김광욱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원중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연구실장

노성태 국제고등학교 수석교사

노영기 조선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류영국 한국도시설계학회 지식나눔센터장, 지오시티(주) 대표

이향준 전남대 철학교육연구센터 연구원



후원이사회

〈후원회장〉

오형근 무등정책포럼 대표

〈부회장〉

이대성 (주)웹매직 대표

최형주 (사)5·18구속부상자회 이사, 목포지회장

〈후원이사〉

고영주 부성포장 대표

김경옥 약사

김동규 준이엔히대표

김명수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문화체육실장

김병균 강토이앤씨 대표

김상집 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상임이사

김성환 (주)마실코리아 대표이사

김용혁 (주)울림 부사장

유병연 삼진종합건설 기술이사

이명란 시인, 문학전문 강사

장지원 SDC 교장, 전 기아타이거즈 운영부장

천형욱 변호사

황재익 오스메딕 대표

재단사무처

이기훈 상임이사

김원중 연구실장

이지은 운영팀장

이지호 사업간사

조운윤 청년인턴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김여정 간사

편집위원회

〈위원장〉

김정희 시인

〈편집위원〉

김향득 사진작가

서순복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

박신영 소설가



이번 호 『창』은 변화하는 시대의 독서문화를 특집기획으로 실었다.

책속의 활자들은 감성을 가진 생물체이고 읽는 이들의 감성에 따라 위치를 바꾸기도 하고 품격도 달라진다. 가끔 시간이 없어 책을 읽지 못한다는 이들을 본다.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그 손으로 다른 것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시간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내 삶에서 시간을 많이 소모하는 일들을 줄이는 것이라 한다. 꿈도 길들여진다. 독서 습관을 길들이는 가을이다.

색채와 먹빛의 조율, 은유적이고 사색적인 그림에 노장철학의 허무의식과 불교적 선미까지-목운 오건규 화백의 우매재(雨梅齋)를 찾았다. 창 있는 공간마다 꽃잎이 붉은 단추처럼 빛났고 꽃말은 방안 가득히 흘렀다. 화가는 도심의 한가운데 섬에서 마음을 그리고 있다. '그래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점검하는 문화진단과 문화청년그룹 소식, 안중근을 기억해 보는 문화톡톡…… 함께 눈여겨 볼 만한 기사가 많다. 물품 같은 언어에 폭풍이 치고 있는 창밖의 풍경에 절망은 더 큰 절망으로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 옥고를 주신 필진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후원회원 가입 안내

지역문화교류 패러다임의 견인차로서
작은 씨앗을 뿌린 지 어느 덧 14년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후원으로 풀뿌리 시민문화재단의 가능성을 확인했던
우리 재단은 더 많은 인과 덕의 향기로
사람들이 절로 모여드는 사랑받는 문화공동체를 구축하고,
지역문화발전의 소중한 자양분이 되고자 합니다.

회원구분

- 평생회원(100만 원 이상 후원회원)
- 유지회원(월 1만 원 또는 연 10만 원, 월 2만 원 또는 연 20만 원 후원회원)
- 후원계좌 : 광주은행 019-107-318262 / 농협 605-01-366632
- 예 금 주 :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 문 의 : 062-234-2727 / 이메일: r-cultural@hanmail.net
(재단홈페이지(www.rcef.or.kr))에서도 회원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재단의 회원이 되시면, 회원으로서 다양한 문화혜택을 누리시고
후원해주신 회비는 연말소득공제혜택을 받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窓 '창'은 우리 겨레와 인류의 문화를 보는 눈입니다.